금주일언 대개 사람이 악한 일 행하고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만족해 하다가 그 뒤에는 고통을 받느니라

〈법구경·악행품 2절〉

東大新聞

발행인	송	석	구
편집인겸주간	최	순	열
부주간	이	준	성
편집국장	이	익	성
편집장	김	소	영

펴 낸 곳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89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11월 20일 (월요일) 1

총학선거 오늘부터 결선투표

투표율 56%저조…과반수 득표자 없어

제28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에 과반수지지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박동민(물리4)·박창민(기공4)조와 유병문(불교4)·황인구(야간 영문3)조의 결선투표가 오늘(20일)1시부터 22일 1시에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대용·불교4)는 각조 선거운동본부장들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개조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총유권자 8천9백44명중 5천90명(56.91%)이 투표한 이번 선거는 16일 3시 학생회관 1층로비에서 진행된개표결과△박동민·박창민조=1천8백8표(36.95%) △유병문·황인구=2천1백54표(42.32%) △유영하(산공4)·김보현(식자3)조=9백24표(18.15%) △무효=1백30표, 오차=1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지역(불대, 예술대)=40:212:62 △2지역(문과대,이과대)=398:384:134 △3지역(사회대,경상대,법대)=372:424:164 △4지역(생자대)=126:120:54 △5지역(사범대)=194:280:141 △6지역(공과대)=539:267:298 △7지역(야간강좌)=212:467:71(이상 박동민·박창민조 유병문·황인구조 유영하·김보현조 순)로 나타났다.

박대용(불교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세후보자들의 정책기조가 다양해 학우들의 관심을 기대했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며 "결선에서는 대대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학생회관 로비에서 총학선거 개표 도중 결선투표가 확실시되자 중선위원들이 모여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늘(20일부터)3일간 다수표를 얻은 유병문·황인구 조와 박동민·박창민조의 재선거를 실시한다.

동대신문 자원봉사캠페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뜻을 이룹니다

"거기 동대신문사죠? 자원봉사 캠페인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자주 걸려오는 문의 전화 횟수 만을 미루어 보더라도 본사 자원봉사 캠페인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원 봉사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과 환상을 가진듯 하다. 자원봉사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든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그다지 도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등이 선뜻 자원봉사에 나설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주위 소외된 이들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채 속단해 버리는 선입견의 일부이다.

한 예로 이 지역 고아원 '남산원'을 살펴 보았다.

리라공고 옆에 아담히 자리잡은 남산원은 중구지역의 유일한 고아원이다. 사립공고의 잘 다려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농구하는 모습에서 조금만 비껴 시야를 옮기면 그곳에 남산원 아이들이 모여 야구를 하고 있다. 홈런을 쳤다고 좋아하며 팔짝팔짝 뛰는 그 아이들은 언뜻 보기에 고아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맑고 깔끔한 모습들이다.

실제로 남산원은 시설도 깨끗하게 잘되어있고 각종 단체들의 경제적 후원도 많아 고아원을 꾸려가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마냥 환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널찍한 운동장 구석에 혼자 농구를 하는 권병태(덕수중 2)는 "부족한 건 별로 없고, 그냥 농구 같이할 형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이 지역 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자원봉사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다. 기성세대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정신적인 그 부분들을 대학생의 열정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그리 거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슈바이처 보다도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줄 이웃집 형, 누나 같은 자원봉사자가 아쉽다.

〈관련기사 4면〉

역경원, 십송률 2권 발간

불교 계율에 관한 내용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14일 불교계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십송률(十誦律)'제2권을 발간했다.

총3권으로 이루어진 이책은 나머지 3권이 올해안에 발간됨으로써 완간될 예정이다.

전 이사장 서운 스님

직지사에서 15일 입적

불교조계종 명예원로이자 1967년 본교이사장을 지낸 김서운(金瑞雲)스님(전등사조실)이 15일 오전1시 경북김천직지사 서별당에서 입적했다.

서운스님은 1960년과 1962년, 1983년등 세차례에 걸쳐 조계종총무원장을 지냈으며, 조계종원로회의 의원등을 역임했다.

신입생 컴퓨터교육 확대 실시

컴퓨터 교육원에서 관장

내년부터 컴퓨터 교양교육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2학점 4시간으로 확대 실시되며 이를 컴퓨터교육원이 주관하게 된다.

컴퓨터 교육원(원장=홍영식·컴퓨터 공학)측은 "지금까지 이공계와 경상대 신입생에게만 실시해오던 컴퓨터 교양교육이 프로그래밍 위주의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EXCEL, 데이터베이스등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강화돼 신입생전원에게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용교양실습실, 대학공용실습실 7곳이 설치, 관리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486DX$_2$1백65대의 수리와 펜티엄PC 2백2대의 구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캠퍼스 LAN과 연계한 실습실 LAN설치로 인터넷이 사용가능하게 되며 PC패널및 OHP의 구입으로 교육실습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등 컴퓨터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0석 규모의 자유 실습실에는 펜티엄PC및 CD-ROM설치로 학생들의 어학공부도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들의 특강개설 요구가 있을때에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해오던 특강을 컴퓨터 교육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게될 예정이며, 교수 및 직원들의 단기 연수를 위한 35석 규모의 연수실 설치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컴퓨터 교육원 원장 홍영식 교수는 "컴퓨터 교육이 내년부터는 좋은 장비속에서실용적교육으로 한층 강화되며 졸업후 입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며 컴퓨터 교육 확대의 이점을 밝혔다.

수강신청 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9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오는 29일부터 12월1까지 3일간 변경 시행한다.

이번 수강신청은 신입생의 학부모집으로 인한 교과과정 개편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다.

한편, 종합강의시간표는 오는 27일 배부될예정이며 수강신청시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수강지도표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교내 컴퓨터 무상점검

공관위서 다음달 20일까지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 정치외교학)가 위탁·운영하는 뉴텍 컴퓨터 매장이 교내 컴퓨터에 대한 무상점검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공관위의 한 관계자는 "컴퓨터 매장이 생기면서 매장의 역할을 판매·관리까지 확대키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무상점검의 계기를 밝혔다.

비용은 무상수리 기준으로 부품교환은 부품비 원가만 청구된다.

대상은 교내 모든 컴퓨터 및 프린터기 일체로 점검내용은 △하드디스크 디렉토리 정리 △하드디스크 및 플로피디스켓 에러 복구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크리닝 △바이러스 체크 △기타 업그레이드 상담 등이다.

접수는 교내 뉴텍컴퓨터 매장(다향관2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260-2766)하면 된다.

제24회 동국인의 밤

12월19일 엠베서더에서

제24회 동국인의 밤이 12월19일 오후 6시30분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총동창회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전동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회비는 3만원이다.

보 리 수

악마의 유혹

히마반트라는 지금의 히말라야의 옛지명이다. 한역(漢譯) 불경은 이곳을 설산(雪山)으로 표기한다. 어느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지방의 숲속 오막살이에서 혼자 명상에 잠겨 있던 중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세상은 저리도 시끄럽고 살벌할까. 정치를 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으며 정복하는 일도 정복당하는 일도 없으며 슬퍼 할 일도 남에게 슬픔을 주는 일도 없이 오직 도리대로 살게 할 수는 없을까"

이때 악마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 이렇게 속삭였다.

"부처님이시여 직접 정치를 하십시오. 손수 통치를 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는 일도 없고, 정복당하거나 하는 일도 없고 또 슬퍼할 일도 남을 슬프게 할 일도 없는 도리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십시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다. 설사 저 설산을 둔갑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다시 그것을 곱으로 만든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면 분쟁과 정복과 슬픔은 끝이 없다. 이것을 알고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잡아함경' 39권에 나오는 이 얘기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형식을 빌어 부처님의 내면에 정치에 대한 유혹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부처님과 같은 성자에게 정치에 대한 유혹이 있었다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세상의 이치를 살피는 지혜가 뛰어나고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에 대한 자비가 깊은 분이 부처님이라면 무엇인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내 '정치의 길'을 걷지 않고 '종교의 길'을 걸었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해서가 아니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에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의 악마가 사라지지 않는한 궁극적인 인간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게 통찰 하였기 때문이다.

내면의 탐욕과 무지를 걷어내지 못하면 히말라야를 둔갑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다시 그것을 곱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다. 대통령직 재임시 수천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씨의 추악한 몰락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지금까지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정치판에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뒷거래를 일삼아온 사람들은 이번 노씨사건을 거울삼아 큰 깨침이 있어야 한다.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안방에서 감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홍 사 성
(불교TV제작국장)

96학년도 임금교섭

노조 임금 15%인상제시

제1차 96학년도 임금교섭이 지난 16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서울경주노조위원과 부총장등 학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15%인상 △수당정액3만원등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임금15%인상에 대해서 노조측은 "내외적으로 학교가 변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업무를 맞는 직원들도 사기가 올라갈것"이라 밝혔다.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차등지급되던 기능직의 특별수당을 정액수당 3만원으로 통일해 지급할것과 사무직은 개별화되고 명분없이 지급해 오던 수당을 원칙에 따라 지급할것을 제의했다.

이후의 일정에대하여 노조의 한 관계자는 "결정은 안됐지만 11월하순경에 제2차 교섭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교수동정

▲송석구(본교총장)=오는 24일 부산불교실업인회에서 주최하는 불교발전대강연회에 초청받아 '불교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란 주제로 국제신문사강당에서 특강.

▲이상현(경찰행정학)=지난11일 개최된 한국공안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5대회장으로 선출됨.

▲민태진(화학)=지난10월27일 사단법인 한국생화학회 추계총회에서 1997년도 학회장으로 선출됨.

▲우성기(법학)=지난18일 행정법이론 실무연구회 월례학술발표회에 사회자로 참석.

동대문학상·학술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조정래의 '태백산맥'첫장이 열렸습니다!

육체는 아팟치족을 닮고
정신은 고호의 혼을 좇아
나를 통한 정의 세계로
선으로 이은 원의 세계로
될때까지 '하겡'을 움켜잡으렵니다.
……
"장충공원의 벤치는 비어 있겠지?
못다한 릴케의 이야기를 마저해야 하잖아?"

제1963년 동대신문 제1회 창작문학상
수상자 조정래의 당선소감 중에서

◈제33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5년 11월1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6년 1월1일자 본지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260-3491·2

◈제10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 동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10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분: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5년11월1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6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게시판이나 ID: dg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아름다운 그 마음 잊지못해

잘못처리한 현금 돌려준 고마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아닌 초겨울 한파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한다. 신문 방송 그 어느곳도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곳은 없는 것 같다. 이 각박한 시대에 동국의 캠퍼스내에서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지난 9월22일 등록금수납, 장학금 지급등의 업무로 동국대 출장소 조흥은행 창구는 매우 혼잡하였다. 은행은 일과후 현금을 1원까지 정확히 맞추어야만 퇴근할 수 있는데 그날 일과후 현금시재를 맞추는데 45만원이 창구에서 부족하였다. 저녁 늦은시간까지 찾아 보았으나 나오지 않아 하는수 없이 창구직원이 개인적으로 변상할수 밖에 없었다. 45만원이 창구직원으로서는 적은돈이 아니었지만 은행 규정상 돈이 부족하면 변상 할 수 밖에 없다. 이후 몇일을 더 찾아 보았으나 부족한 원인을 찾지 못해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던중 약 3개월이 흐른 지난 11월15일 한 여학생이 조흥은행에 찾아와 9월21일 창구에서 5만원을 내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보니 통장에 50만원이 입금되어 있어 잘못 입금된것 같으니 45만원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은행직원이 5만원을 50만원으로 잘못 입금하여 준것이었다. 3개월이 지나 변상한 45만원을 찾은것이다.

우리는 그 학생이 너무나 고마웠다. 사기, 술수, 부도덕이 관치는 이 시대에 동국의 캠퍼스에서는 아직도 정직과 믿음이 충만한듯하다. 이것이 곧 오늘의 동국을 만들었으며 이런 학생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조흥은행 동국대 출장소를 떠나도 나는 돈을 찾아준 영문학과 2학년 양혜유 학생을 잊을수 없으며 이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김 상 현
〈조흥은행 동국대출장소 소장〉

"선거문화 변해야 한다"

대중정치 원칙 살린 경험의 장으로

총학 선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대학에서의 선거, 특히 남한과 같은 정치상황속에서 대학이 가지는 의미와 그같은 맥락속에서 대학에서의 작은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물론 그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음이다. 몇가지로 한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학문화라는 것이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대학이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독립성을 띠는 문화집단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사회의 다른 부분과 다르게, 어느 일정한 선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일탈이 용납되는 대학의 특수성과도 연관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가능성의 영역이고, 진보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진행되어왔던 선거를 보면 보수정객들의 정치형태와 닮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대중을 표찍는 기기로 전락시키고, 선거의 최종적 목표가 권력장악에 있는 것인양 대중정치의 원칙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학의 선거가 최소한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들을 많은 학우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학에서의 작은 정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진정한 정치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정치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그러한 작은 정치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수적 담론들의 허실을 구분해내고, 보다 진보된 사회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정치경험의 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비단 그것은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대학 문화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부르조아적 가치들을 하나하나 공격해내고 진정한 문화의 모습을 찾아가는 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선거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것은 주류질서의 담론들을 강화시키는 데 한몫 했을 뿐이다.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건 그저 아무런 생각없이 선거운동원이 시키는 대로 찍는 사람이건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동악의 선거문화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의 모습은 고정된 청사진적 대안으로 말해질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이는 과정자체가 나는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다. 명사적 대안만이 대안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사적 대안인 것이다.

김 경 모
〈불교대 인도철학과〉

학림관 관리 내실 기해야

계단·일부의자 거칠어 위험

계단, 강의실 의자등 사범대 내부시설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을때부터 사범대 도서관쪽 계단의 상태는 심각했다. 계단의 미끄럼 방지틀이 너덜너덜 떨어져있고 계단의 일부가 부서져 자칫 잘못하다간 발을 '삐걱'하기 십상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단은 그 옛날 그상태 그대로이다.

또한 사범대 강의실 나무의자들은 결이 뜨고 갈라져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힐 위험이 있으며 스타킹을 신은 여학우들은 올이 나가지나 않을까 조심해야만 한다.

사범대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실관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학생들이 종종 불평을 털어놓기도 한다.

분명 학교에서 학림관 관리를 하고있을 터인데, 사범대 외관인 후문의 돌담길과 폭포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바빠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 걸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강정같은 이러한 실태가 결코 사범대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한 사람의 동대인으로서 좀더 내실있는 학교관리를 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정 주 영
〈사범대 역교과〉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공간문제 산발보도 아쉬워

이제 종간의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보는 동대신문은 여러모로 새롭다. 사람하고의 만남도 으레 그렇듯이 사못 아쉬움이 남는다. 매년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 1학기초 새로운 편집진과 신입생 기자들로 신문을 꾸릴때는 불안한 듯 또는 어딘지 모르게 어수룩하게 느껴지기도 하던 동대신문이지만 이제는 제법 프로다운 내음이 배어져 있다.

지난호동대신문(제1188호)을보면서한가지아쉬웠던부분은학내공간관련기사였다.1면에 "의국어교육원,동국관이전시설확충…교육향상 기대", 7면에 "학생회관 공사 실시 합의", "예술대 학술문화센터 이전 문제많다", "조소전공만 제외… 학교측과 마찰 우려" 등의 기사는 전혀 다른 사실들로 취급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가지 기사가 하나의 사실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학술문화관이 건립되고 교내 제공간에 대한 재배치계획이 마련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인데 그 주된 내용에 대한 기사는 없이 산발적으로 다루다보니 발생한 사실만 안이하게 취재보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다음 호 신문에서는 대부분의 동국인들이 상당한 기대감으로 지루하게 기다려온 학술문화관의 현재 공사진척 상황, 개관 예정시기, 내부주요시설, 이와 관련한 공간 재배치계획 등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곁들여 상세하게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예술대든 동아리연합회든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관계자들도 고충과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소개해야 기사의 균형이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지난 1년동안 신문 만드느라 수고한 기자들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낸다.

박 상 관
(연구교류처 연구부계장·본사모니터)

동국인이 함께하는 지속적인'캠페인'되길

지난호 동대신문(제1188호)은 지속적인 '자원봉사 캠페인'이 참신선하고 좋은 것 같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경주지역민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획과 기사가 실렸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캠페인이 앞으로도 전 동국인의 관심속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6면의 서평 '에코뮐로소피'는 학생들이 읽기에 다소 난해한 점이 있었다. 학생들이 조금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

김 정 현
〈불교문화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동/문/칼/럼 '동대만의 의리와 정의감'

재학시절에는 실감키 어려울지 모르지만 선후배라는 연결고리는 영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를 살아가는 바탕이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으로 이어진다면 학연이란 엄청난 연임에 틀림이 없다.

국적은 바꾸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해준다.

필자는 분명, 64년에 동대정외과를 입학하여 68년에 졸업했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언론계에 투신, 정치부기자로 출발, 올해로 만30년을 맞는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생활에 취미를 갖지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이유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군사독재를 타도하는 6·3사태로 *학원분위기는 연일터지는 '데모'*로 최루탄 세례와 돌멩이의 공방전이 벌어져 면학분위기가 아니였지만 고교시절의 실력을 믿고 교양과목이었던 모던잉글리쉬(m-orden English)를 펼쳤을때부터 대학공부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것은 후일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뒤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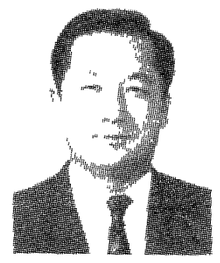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학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배양해야만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한다. 그렇다고 요즘 신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미팅'이니 '데이트'나 '사랑'같은 것이라도 멋지게 해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위해보고 싶다하지만 당시만하더라도 같은 과에는 심모, 손모 두여학생이 있긴했어도 말한마디 붙이지 못했던 수줍은 총각이였다.

이러한 촌놈이 서울의 필동에 위치한 동대캠퍼스에서 우왕 좌왕 하면서 부전공이었던 독일어 시험때는 앞자리에 앉은 정모군에게 시험지나 보여달랬던 그 시절이 지금에 와서는 한없이 후회스럽고 때로는 웃음까지 터져 나온다. 공부하는데 핑계란 있을 수 없고 이유도 존재할 수가 없다. 당시 무조건 열심히 공부했던 유광진학생은 당시의 모범, 우등생이였으니 모교에 교수로 남아 요직을 두루거치면서 후진양성에 큰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동대출신이면 의리하나만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기간 우리 헌정사상 야당에 몸담아온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동대출신들이란 점이다.

70년대 필자가 정치부기자로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을 출입했을 때만해도 김은하(원내총무) 김동영(조직국장) 황명수(총무국장) 최형우(사무차장)과 박회부, 명화섭 동문등 많은 동대출신들이 야당정치인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동대출신들이 의리와 정의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한 것이다.

필자 역시 당시에는 비록 지방지이긴 했지만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했던 대구 매일신문의 신민당출입기자로서 민주화를 위해 예리한 필봉을 휘둘렀으며 동대출신 선배들로부터 남다른 사랑도 받았다.

대학졸업후 30여년이 흘러가면서 새삼느껴지는 것은 그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서 신뢰받는 의리와 정의를 바탕으로한 동대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후배들은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지만 정의감과 의리만은 전통으로 계승시켰으면 한다.

송 인 식
〈세계일보 편집부국장·정외 68졸〉

낙수자국

안 도 근
〈인문과학대 국문과〉

스래트 집에는 처마가 없다 하루종일 내리는 비에도 방문을 열수가 없어 빗소리 속에 다시 비가 내리고 골골이 파여있는 지붕위를 소리들이 굴러간다 낙수자국 세던 스래트 집속의 꿈, 어디 먼 과거엔 빗소리가 검은 기와 그림자로 떨어졌으리라 비가 내리고 낙수가 마당을 한껏 파헤치도록 나가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천둥소리 간간이 아버지의 가래끓는소리 들리고 손끝아 세던 낙수자국이 점점이 눈물로 박힐때면 스래트벽을 베개삼아 잠들기도 했었다

가끔씩… 어머니가… 나에게로… 오는…

아침, 젖은 신발로 마른땅 위 낙수자국을 비벼 메꿔보았지만 오늘도 아버지는 일어나시지 못했다 함석대문가엔 여전히 어머니 모습 보이지 않고 나는 수없이 파헤쳐진 아픔을 셀수 없었다.

동/악/광/장

목멱골

⊠ 축하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화공과 허진석군 제대 축하한다.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길 빈다.

－종규

■화현회가 연주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쁜 '95수경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멋있는 일이 발생하길 바래요.

－역교과 복학생

■제28대 국교과 이종섭·한창호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학림인

■농경 '94이수훈 군입대 면제 축하한다. 이제 우리는 졸업동기다. 잘해보자.

－'94 I·H

■승현이 형의 취직(96. 1월자)과 생일(95.11.20)을 축하합니다.

－S·K

■혁진아 운전면허 9수째 합격한거 진짜루 축하한다.

－북한학과 95 ICE

■승완이 형 나이먹어 운전면허 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애썼소' 타코 하나 빠!

－정호가

■잘나가는 경영학 연구회! 11월25일 제21회 졸업생 환송회를 축하해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AD.RUSH광고전 선배님들 동기님들 수고하셨어요.

－AD.RUSH '95

⊠ 알립니다

■검정고시 동문의 밤. 11월25일 19:00시, 장소:샤롯데. 안오는 사람 list작성해서 개별방문 예정.

■11월26일 검도부 카니발합니다. 많은 검도인들의 참여바랍니다.

－기획부장

■우리 선무부 인하대로 시합간대요. 모두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쁜이

⊠ 열심히 합시다

■제28대 국교과 자주적 학생회 건설을 위한 출발 이미 시작됐습니다. 형 축하해요. 열심히 합시다.

－비서

■제28대 지리교육과 학생회의 힘있는 출발을 기대합니다.

－떠나가는 학우가

■학우들 속에서 생동하는 몸짓으로 국교 발전의 한길을 내딛을 제28대 국어교육과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년 힘차게 살아봅시다.

－이종섭·한창호 드림

⊠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학우, 특히 93학번 학우들 오랜만입니다. 군에서나마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길 빌께요.

－Computer공학도였던 멋있고 잘생긴 승원 올림

■예쁜 쌍덧니를 가진 대용이 형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동생

■아빠!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이름: 박대용, 학과: 무역학과, 인상착의: 모자에 덧니, 샌들을 신고 다님.

－아이들

■성태야 힘내! 좌절하지 말고 떠나버린 여인을 생각하며.

－김성태

■성경아! 몸 건강하고, 술좀 줄여라.

－상준, 재목 '95정외

■정각원에서 신발 조심합시다. 저 벌써 당했어요. 멍청하게시리.

－열받은 모학우가

■지교과의 배추가 오토바이 사고로 고려 대학 구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빨리 완쾌되어 동악을 활보하길 빕니다.

－지교 94

■저희 집은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르던 귀여운 대통이가 집을 나간 후 저희는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이는 덧니에 털이 별로 없는 강원도 태백산 순종입니다. 저희가 대통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전해주세요.

－동·신이네

⊠ 목멱장터

■모니터, 하드, 램케이스 팝니다. 업그레이드 설치까지.

－토목 '95이성주 015－914－7732

〈구내식당 식단표〉

다향관 식당		
20(월)	미역 양지국(900)	폭찹(1,500)
21(화)	콩나물 콩합밥(900)	버섯잡채밥(1,000)
22(수)	순두부 찌개(700)	닭고기비빔밥(1,000)
23(목)	오징어볶음밥(1,000)	완자탕(1,300)
24(금)	떡볶이 백반(900)	햄썰어찌개(1,000)
25(토)		미트볼스파게티(1,200)
동국관 학생식당		
20(월)	어묵찌개(900)	돈까스(1,000)
21(화)	쇠고기버섯찌개(1,000)	비빔밥(900)
22(수)	통감자국(900)	삼선짜장밥(1,000)
23(목)	사골곰국(1,500)	볶음라면(900)
24(금)	조기 매운탕(1,000)	김치밥(700)
교직원식당		
20(월)	콩비지찌개(2,200)	돈불고기(2,500)
21(화)	떡로국밥(2,500)	미트볼덮밥(2,500)
22(수)	냉이된장국(2,200)	낚지볶음(2,700)
23(목)	곰장전골(2,500)	콩나물비빔밥(2,200)
24(금)	갈비탕(3,000)	참치찌개(2,200)

온방골

⊠ 축하합니다

■섭섭이 오빠 손시린 날 탄생축(진호 오빠두)

－95 호호

■You－loss 21일 공연하는거 축하하고 땀흘린것 만큼 보람이 있길 애숙이 화이팅!

－성진이가

■10대 회장·부회장 및 집행부원들 먼저 축하하고 내년에 열심히 DUCO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L·T는 물론 재미있었겠지?

－항상 DUCO를 사랑하는 97기

■상경대 기호2번 유치진·장덕래조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호1번 한 운동원

■우리 만남과 사랑의 1주년을 자축합시다. 숙희야! 사랑해

－연길

■용문형 앞으로 있을 졸업을 억수로 축하하고 훈련소나 부대에서도 우리들을 잊지마세요. 추~웅~성

－29기 숲모군

■필하모니 욕쟁이 커플인 미련곰탱이 창민이와 隻年 미경이의 22번째 생일(11월22일)을 축하하며

－황산벌에서 無心이

■法(夜) 축 당선 학생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학년 누가

■선균아, 졸업을 축하하며 군에 가서도 눈물흘리지 말고 열심히 生活하여라.

－규

■굴비야 육지에서 살기 힘들지! 육지에서 맞는 너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해 굳세어라 연광아!

－잠(팀+순)이

⊠ 수고하셨습니다

■R·C·Y응원의 밤

정말 좋은 행사였던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청소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정말 감사합니다.

－불휘일동

■불교학과 학술제 준비해주신 모든이와 불교학과 모든 법우님들 수고하셨어요.

－93 불교인

■형! 4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형 잘 사세요.

－불교 94

■동일·상태 그리고…

올바른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당선되지 못하였으나 '상경대 사랑'의 마음을 잊지않고 열심히 살기를…

－선

■국문과 학술제 따봉!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日 귀염 II

⊠ 열심히 합시다

■여총에 당선된 박유진양 내년에 내가 없어도 잘해 나갈거라 믿어.

－누구가

■택견 녹야원에서 22일날 시 연회하는거 성공하길 바랍니다.

－Jin

⊠ 그리고…

■大낙동·경혜의 95졸업생환송회를 23日 런던호프에서 6시부터 합니다. 모두 모여라. 빠짐없이

－회장

■불휘 영원한 15기 기장 후가 나온대요. 모두모두 모여주세요. 이세환 화이팅!

－?

■大경원·송현 동문회 및 졸업생 환송회가 이번주 수요일 석장식당에서 개최됩니다.

－회장백

⊠ 온방장터

■아무생각없이 사버린 새 키보드(컴퓨터)를 사가세요. 가격은 일만오천원. 국문1 학보통에 엽서로 연락쳐 주세요.

한국노동운동의 발전과 전망

생산직—사무직 노동운동 통합시급

산별노조건설로 민노총자리 굳힐때

강 신 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주노총의 출범과 의미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정식 출범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어떤 전환기적 의미가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노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출범한 민주노총이란 기업별 노조를 최하급단위로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체계에서 한국노총에 비견할 수 있는 최상급의 전국조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이점에서 민주노총의 성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이해를 '민주적으로'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노동계 내부에 있으며 민주노총은 바로 이런 인식의 반영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1987년 이후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수 있다. 둘째 민주노총은 창립준비 시기부터 줄곧 기업별 노조를 하부단위로 하는 기존 한국노총과 구별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목적인 노동자 이해의 '민주적 반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앞으로의 과제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은 크게 생산직 노동자들의 운동(전노협으로 대표)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운동(업종회의로 대표)으로 나뉘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노총은 일차적으로 이들 두 운동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단순히 조직의 양적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들의 이해를 '민주적으로'반영하기 위한 수단, 즉 조직의 질적 변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질적 변환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서 달성된다. 따라서 질적 변환의 내용은 바로 노조교섭력의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율은 겨우 14%로서 이는 독일의 40%, 영국의 44%, 심지어 일본의 25%에 비해서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결국 민주노총이 앞으로 자신의 성격에 맞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조조직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실업자나 하청 및 파트타임 노동자도 모두 포괄하는 산별노조는 바로 그런 노력에 유효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조건과 제약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민주노총의 출범에 부쳐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악법조항으로 지목받은 바 있는 현행 노동법상의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3자개입 금지조항'의 적용과 권영길씨 등 민주노총의 핵심간부들에 대한 검거를 새롭게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 장애요인외에도 내부적 장애요인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미 내부규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맹단위와 관련, '산업별 노조'원칙을 둘러싼 이견들이 노출되었다. 크게 지역별, 업종별이라는 두 개의 원칙이 틈새를 충분히 좁히지 못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거부되었던 그룹별 가입원칙이 현총련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여 우회적인 형태로 수용되었다. 말하자면 조직의 질적 변환의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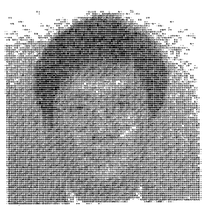
민주노총의 출범과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 전망

앞으로 넘어야 할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출범은 일단 출범 그 자체만으로도 우선 기존의 한국노총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지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의 태생적 본질인 '민주성'의 확대와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민주성이 올바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의 주체적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의 전망은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의 질적 변환의 성공여부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그것이 사실상의 민주성의 내용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불법단체로서의 민주노총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조직의 질적 변환을 이루는 산별노조의 건설에는 현행법상에도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며 따라서 산별노조의 올바른 건설만이 민주노총의 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장래는 그것을 직접 이끌어갈 노동자들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거대한 '민주주의'의 실험이기도 한 것이다.

시사논단



김 종 일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정경유착 청산 과제

정치 경쟁화·공개화… 국민 감시자로

요즘 6공 권력의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그대로 들어남에 따라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구속수감된 전 국가원수와 검찰을 들락거리는 내노라하는 재벌 총수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향방등 무수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현재의 사태를 보며 이 사건이 하나의 드라마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초래한 부패의 실체와 그 폐해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의 액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처벌 이상의 처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이 부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뇌물성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국민이 주인인 공공재를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은밀하게 팔았다는 것이다. 이 공공재의 양과 가격은 그것이 국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칙이 불분명하면 공급자인 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부패한 정부일수록 그들의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없는 공공재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6공화국 시절 대형국책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이것들이 과연 국민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설령 그 공공재가 국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패한 권력 하에선 그 공공재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다 뇌물이 더하여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공재는 높은 가격에서 정상적일 경우보다 적게 공급되고 이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러나 저러나 이상의 모든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부실공사, 경제구조의 왜곡 등의 폐해로 나타난다.

둘째,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재벌의 성금에서 온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해 보자. 언론에서나 사법당국에서나 이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금의 액수가 천문학적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성금의 은밀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재벌은 성금을 냄으로써 정부와의 은밀한 '관계'(정경유착)를 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재벌들이 그렇게 비싼값으로 사려한 데서 그것이 재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짐작할 수 있다. 공정거래를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경제행위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른 참된 경쟁을 할때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국민의 복지가 최대화 된다는 데 있다.

부패한 권력자가 초래한 왜곡된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그 부패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 부패의 액수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국민경제에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재벌의 반성을 다시 한번 믿어 주고 노 전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이 고쳐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치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정치는 제대로 된 경쟁이 없이 하나의 절대권력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왔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직도 정치에는 참된 경쟁이 없다. 그러나 정치가 제대로 되면 정치가 가장 중요한 부패의 감시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공천권을 포함한 여러가지 결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정치자금이나 비자금이나 하는 돈의 필요도 줄어들게 되고 소수에 의한 대규모 부패도 줄어 들게 될 것이다.

둘째는 경제에 참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경쟁의 촉진은 무조건 재벌을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재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비경제적 수단을 경제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을 기회삼아 모든 경제행위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진정한 경쟁을 도입한다면 부패라는 낙싯밥을 던질 재벌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모아야 될지, 어떻게 이중장부를 써야할지, 헛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 배양에 더 힘 쓸 것이다.

세째는 모든 사회행위에 은밀성의 여지를 축소하는 것이다. 즉 모든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경제행위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물위로 들어나게 된데는 금융실명제의 효과가 컸다는 것을 듣고 있다. 권력자의 의지나 검찰의 노력보다도 바로 금융실명제가 이번 사건을 들추어 내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과정이 항상 공개되어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이상은 권력자의 의지나 지도층의 반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철저한 감시자로 나설때 가능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번 6공화국의 부패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의 책임과 권리를 착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우리에게 있고 그 피해는 바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사설

결선투표 의의 살려 참여를

지난주 실시된 제28대총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로 인해 선거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가싶더니 이번주에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각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의 합의사항을 굳이 문제삼고 싶지는 않지만 그과정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이번 총학생회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득표를 하지못할시 다수 득표자 2개조가 다시 결선투표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례적인 것으로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켰어야 할 사항이었다. 재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도 그에대한 홍보가 부족한것으로 미뤄 다시 선거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우려한바대로 과반수를 겨우넘는 약57%를 나타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간의 유세와 공청회의 모습 그대로이다. 반강제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번선거의 투표율을 보면서 우리는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된다.

학생회는 몇몇 일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는 대중조직으로서 학생대중들의 자주성에 기초한 이해와 지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소수간부들을 위한 학생회가 아닌 다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간의 모습들은 어떠했는가 우리모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생회의 후보 부재에서도 문제는 단면적으로 드러난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 학생회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회위기를 떠나 존립여부까지도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생회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정서는 점점 더 다양화, 개별화되어간다고 말해지고 그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간다고도 한다. 각각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들을 어떻게 대학이라는 공동체속에서 함께 실현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학생회는 학생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생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회실도 더이상 간부들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부담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학생회속에서 구성원 나름대로 자신이 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동국의 90주년을 이끌어 갈 이번 학생회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생회는 당연히 학생회체계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과 대안을 모아내야 한다. 한편으로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각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는 요즘 우리대학나름의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금번 타성적인 이사들이 유임에 따라 재단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올해 새로 재단이사회가 구성된만큼 학교발전에 대한 재단의 의지와 역할들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회가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와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지 않는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다.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중선위의 분발을 기대한다. 처음부터 중선위구성 자체의 한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지녔고 선거진행과정상에서 각 선운본이나 유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또한 컸던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선거를 치르기위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

단 한번의 결선투표가 남아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한 표 얻는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될것이며 학생대중들 또한 표 하나 던지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될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은 물론 인맥선거, 부정선거가 아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선투표의 의의가 제대로 살려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거 동참이 필요하다.

알 림

이번호 '동국만평'은 필자사정으로 쉽니다.

"마당발"

한걸음을 내딛더라도
세계로 큰 걸음을 걷는 삼양그룹!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를 외칠 때 삼양그룹은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조용히 세계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사원들이 세계화 되어야 삼양그룹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삼양의 경영자를 키우는 Future Leader 교육,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Global Manager 교육, 1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공부함으로써 현지적응을 추구하는 海外파견제도-
삼양은 젊은 인재들의 패기와 정열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국을 무대로 뛰는 마당발이 되고자 합니다.

Future Leader, Global Manager 교육 및 해외파견제도는 세계화를 준비하는 삼양그룹의 사원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영역: 화섬, 식품, 사료, 화성, 금융, 무역, 기계, 환경, 정보통신, 텍스타일, 의약
- 해외활동: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해외 각지의 지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지점망 확대에 주력

삼양그룹
삼양사, 삼양종기, 삼양제넥스, 삼남석유화학, 삼양화성, 신한제분
삼양종합금융, 삼양베디케어, SY텍스타일, 삼양텍스, 삼양데이타시스템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

기획시리즈〈4회〉

소외된 무의탁 노인을 찾아

본사가 펼쳐지고 있는 자원봉사 캠페인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이 여러 동국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학군단 명예위원회 6명이 필동의 이학용(73세)할머니를 찾은 방문활동기와 경주캠퍼스 의예과, 사회복지과 25명의 학생들이 '천우자애원'양로원을 찾은 봉사활동 취재기를 함께 싣는다. (편집자)

◇어느 동사무소 직원의 감사편지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자원봉사 선뜻 지원 동대생에 감사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이유는 지난주 이학용 할머니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신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자원봉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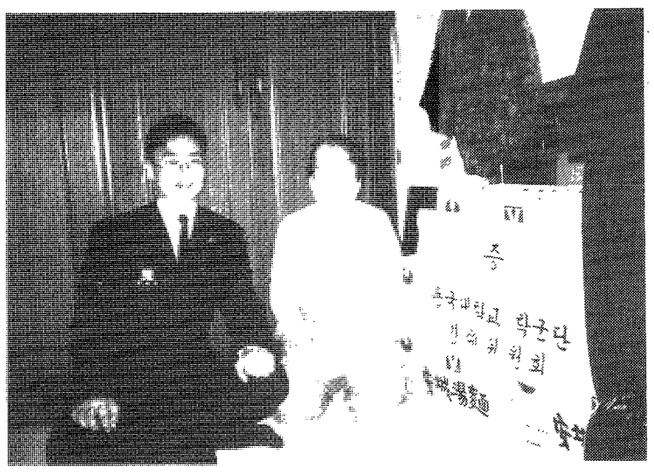
소년·소녀 가장이나 무의탁 노인들께 진정 필요한 것은 생필품이나 라면 몇 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정이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 안아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와서 거짓웃음을 짓고 사진이나 찍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생활에서 오는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남들보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들은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같이 뛰어놀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그리워 합니다. 그들에게 선물꾸러미보다 따뜻한 마음을 주십시오. 몸이 아파도 남들처럼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힘겨워 할때 조용히 옆에 앉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만 있어도 그들은 충분히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자원봉사자로 지원해준 용기있는 동대 학생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족을 찾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김 계 숙

〈필동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직원〉



◇지난 14일 학군단 명예위원 소속 6명이 필동 3가에 사는 이학용(73세)할머니 댁을 찾아 식료품과 생활비를 전달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학군단의 사랑보내기

"작은 성의 모아 따뜻한 사회를"

혼자사는 할머니에겐 첫눈처럼 반가운 손님

필동3가 49-5번지에 사는 이학용(73세)할머니. 학교가 26번지니까 바로 우리 옆집 이웃인 셈이다.

이 할머니는 거택보호자로 5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월7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무의탁노인이다.

요즘은 누구나 첫눈이 기다려지는 때지만 이 할머니만큼은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겨울을 알리는 첫눈은 달갑지만은 않다.

한달에 한번 정도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사무소 직원 외에 하루 온종일 사람 대하기가 힘든 할머니의 단칸방에 얼마전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다.

소외된 지역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는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한 학군단 후보생 한동희(경영4)군등 6명이 주머니를 털어 라면과 쌀 그리고 생활비 9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연말이 되어 무의탁노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학교 이미지 향상의 이유로 자발적 모임과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에 나선 것이다.

한동희군은 "우리의 도움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그분이 정을 그리워 하셨던 탓인지 저희들의 방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라고 자원봉사 뒤의 소감을 밝혔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애정에도 크게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진정 그분들에게 손길하나 주는 사람이 없음을 한군의 말에서 느낄 수 있다.

학군단 자원봉사자는 이번 방문을 뜻깊은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

부정기적으로 무의탁노인 방문하던 것을 연말 행사로 할 예정이고 신문사에서 좋은 취지의 활동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주의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우리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고 다짐한다.

한군은 "무의탁 노인분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도움만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며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고 작은 성의를 모아 그분들께 보인다면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학군단의 방문에 이할머니는 고마워서 어쩔줄 모른다.

방문이후 며칠이 지나 할머니는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연신 '고마운 분들'이라며 직원분들의 손을 잡고 대신 사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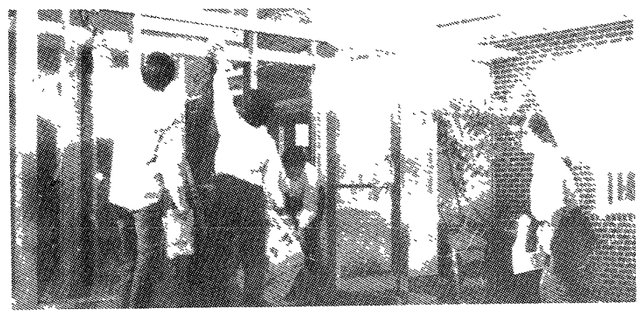
그래도 선뜻 나서는 후원자가 있고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아래 보호받는 소년소녀가장과는 달리 무의탁 노인은 생계유지조차 힘든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하루하루가 연명일 뿐인 삶에 있어 자그마한 관심의 손길은 큰 힘이되는 것이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누구하나 찾아오지 않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첫눈처럼 반가운 손님이 되어보자. 〈한상용 기자〉

◇양로원 자원봉사 동행 취재기

의예과·사회복지과 자원봉사

청소부터 시작…처음의 어색함도 사라져



의예과, 사회복지학과, 불교아동학과 이 3개의 학과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생각할지 모르나, 타인에 직접적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에 함께 모였다.

지난 18일 남들모두 쉴 토요일, 어색함과 쑥스러움속에 타지역에 봉사간 불교아동학과를 제외하고 사복과와 의예과 25명이 자원봉사란 글자하나에 모여 간곳은 '천우자애원'이란 양로원. 동국약품에서 받은 의약품과 학복위, 학생회관식당에 찬조를 받은 다과를 들고 차에 오른지 15분정도,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들 정도로 의진 산위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었다. 이 곳은 생활보호자의 자격을 갖춘 65세이상 무의탁노인 45명을 현재 무료로 수용하고 있었고, 양로원의 운영은 80%의 국가보조금과 20%의 사부담, 그리고 약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봉사자들은 도착해 차에서 내리면서 여기저기 웅성거리며 뜻밖이란 표정을 지어보인다. 예전에 생각했던 더럽고, 시설도 낙후된 양로원이 아니라 건물내 숙소, 식당, 대중목욕탕, 간호실등의 부대시설과 법당, 요양병동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깨끗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총무 황명만씨는 "고아원과 양로원등 복지시설의 낙후, 지원미비등 편견적인 생각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시설의 증가와 질적향상을 가져오지만, 그에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뒤떨어져 있다"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함이 곳곳에 있었다. 잔디에 앉아서 담배만 피워대거나 휴게실에 앉아 멍하니 계신 할머니, 주위에 할머니들이 계시지만 말한마디 없는 침묵의 공간같이 여겨졌다. 첫발을 디딘 봉사자들은 "어디서 왔는교" "고맙니더"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들을 잠시 접어두고, 양로원청소부터 시작했다.

봉사자에게 제일먼저 주어진 일은 양로원본관과 병드신 노인들을 모신 요양원, 관리동등 총4백평 규모의 유리창을 모두 닦는 일. 수건하나씩 손에들고 찾아간 요양원, 약품냄새와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유의 퀘퀘한 냄새가 섞인 곳에서 시작한 청소에서 희뿌연 유리창이 투명한 유리창으로 변해갈수록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어색함도 엷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한 할머니가 청소도구를 들고 와 "나도 한데이"라며 시작했고, 건물청소가 다 끝나가면서 얼굴에 땀이 맺히고, 팔엔 힘이 빠져가도 모두 말없이 열심이였다. 청소하는 것을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켜보는 김나미(75세)할머니, 옆에가니 이전 세상살이를 말해주는 담배냄새부터 몸에 베여있다. 낙이없다고 그냥 담배만 피워대면서 매일 똑같이 보낸다는 할머니의 말에 그저께도 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그렇게 살다죽는거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말에 어두운 그늘이 보였다.

청소를 끝내고 모인 다과회. 힘이 없어 의자에만 앉아있는 양할머니(88세), 중풍이 들어 한팔이 마비된 김득례할머니(73세)등 모두가 한자리에 봉사자들과 어울렸다. 이기남(사복2)군의 사회로된 다과회에 처음엔 어색해서 멀찌감치 앉아있던 할머니들도 중반에 한할머니의 각설이타령엔 끝내 어깨춤을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선 대화를 나누기 바빴다. "맨날 보는 사람들, 할말이 어딨나, 힘도 없고…"라고 말문을 연 할머니는 끝내 자식얘기가 나오자 "딸하나 있는디, 보고싶지도 않데"라며 말문을 막는다.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한할아버지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끝내 소리없이 우신다. 왜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없이 손만 꼭 붙잡고. 나가는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고맙데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라고 부탁은 못하겠다는 할머니들을 뒤로하고 차에 오른 봉사자들. 돌아오는 차에서 김석화(의예2)군은 "재미있는 얘기를 할려고 해도 할머니들이 너무 어두워 말하기 힘들었다"며 아직 생각은 모두 정리하지 못했지만, 양로원이 이젠 어색하지 않다고 한다. 돌아와 잔디에 둘러앉아 미흡한 것이 많았지만, 할머니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찾아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등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는 이들의 등뒤에 노을이 붉게지고 있었다. 사복과 한 학우의 말도 함께 묻혀 "자원봉사는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람으로 도우러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현주 기자〉

이번 봉사활동에 약품을 지원해주신 동국약품과 경주병원 약국장님, 음료수를 제공해주신 학생복지위원회와 다과류를 제공해주신 학생회관 식당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악로

새로운 출발

전경련 사무실을 비롯해 빌딩들이 빽빽히 둘러싸여진 여의도에서 지난 12일 2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창립,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경련 사무실은 곧 민주노총 사무실이 될겁니다"라는 사회자의 뻐있는 말에 노동자들은 크게 호응하며 박수를 쳤다.

'건설 산별노조' '참여경영확대'등 민주노총 20대과제가 쓰여진 에드벌룬이 푸른 하늘을 메우고 노동자들은 머리띠를 꽉 졸라매어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남편을 따라온 아내, 아빠를 따라온 꼬맹이 아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설프게나마 "투쟁!"을 외치며 함께 참여하고자 했다.

노동자 남편과 함께 온 아내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진 노동자인줄 미처 몰랐어요"라며 새삼 남편을 자랑스러워 했다.

한편 '전태일열사 분신25주기'를 하루앞둔 이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던 열사를 대신해 참석한 그의 어머니 이소선여사는 "태일이는 여러분께 모든 걸 맡긴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보니 이제 일기장 속의 그말이 이해가 됩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초대위원장 권영길씨는 창립선언문 결의문등을 낭독하고 "대통령이 도둑질하는 세상 민주노총이 막겠다는데 왜 이적단체라 하는 겁니까"라며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정치세력화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본대회를 마친 후 각기다른 형태의 노조를 한데 묶어내는 중앙조직, 민주노총 총단결의 상징을 형상화해낸 '민주노총호출항 대동뱃놀이'에서 노동자들은 오색천의 노를 힘차게 저으며 어우러졌다. 제2노총이 아닌 민주노총으로서, 그 상징배를 띄우고 매달린 애드벌룬의 실을 끊어 하늘로 떠나보낸 노동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을 것이다.

'대통령, 재벌도둑에게서 우리 피땀 되찾게 하소서' 〈박묘선 기자〉

젊은이여, 시대의 흐름을 알자! ③

"性의 개념을 바꾸자!"

원선희대리
LG산전 안양연구소 자동화기기 주임연구원
美 IOWA주립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혹시 당신은
겉으로는 남녀평등을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자, 혹은 남자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날로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오늘,
그러한 性別의 고정관념은 자신을
열린 사회로부터 고립시킬 뿐이다.
내일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다.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이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자.
내일의 사회에 걸맞지 않는
性別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자.

LG

기술의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미래의 기술은 산업용 전기,전자기술—
LG산전이 앞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産電분야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추세—
産電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젊음을 투자할 만한
기술분야입니다.

■전력기기·설비 사업 분야
●저압기기 ●고압기기 ●변압기 ●계량기기 ●송배전설비 ●전기집진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빌딩설비 사업 분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빌딩관리시스템 ●주차설비 ●방범방재시스템 ●고소작업대 ●송풍기 등

■제어기기 사업 분야
●Robot ●PLC ●CNC ●인버터 ●안정기 ●초음파세척기 ●센서 ●릴레이 등

■자동화시스템 사업 분야
●자동창고 ●물류시스템 ●공정제어시스템 ●호이스트 ●도로교통 및 철도운행 제어시스템 ●가외선살균시스템 등

■서비스 산업기기 사업 분야
●자동판매기 ●쇼케이스 ●자동문 ●고압세척기 ●차량정비기기 ●주유기 ●세차기 ●전동공구 등

LG산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대표전화 (02)3777-1114

◇서평—

'조선시대 천거제도 연구'

조선 전시기 걸친 천거제의 제도적 측면과 시행상황을 유기적으로 검토한 역작

남 도 영
〈문과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에는 과거제와 문음제만 있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천거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민이나 고관들의 추천에 의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천거제는 학식과 덕행을 아울러 갖춘 인재, 즉 전인적 인격을 지닌 자를 뽑는 제도이다. 천거제는 우리나라에 과거제가 도입되기 훨씬 전인 삼국시대 초기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려시대에도 관리등용제도의 하나로 기능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관리층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천거제는, 전기에는 조광조(趙光祖) 등 사림파(士林派)의 진출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고, 후기에는 재야유림인 산림(山林) 즉, 대북의 영수 정인홍(鄭仁弘),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 남인의 영수 허목(許穆)등의 등용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제 기능을 상실한 과거제의 대안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조선시대의 천거제에 대한 연구가 종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구선 박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번에 '조선시대천거제도연구'의 출간으로 그 실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온 연구의 결실로서, 27대왕 5백여년 간의 '조선왕조실록'을 빠짐없이 섭렵하여 조선왕조 전시기에 걸친 천거제의 제도적 측면과 시행상황을 유기적으로 검토한 역작이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조선전기 천거제의 성립과 그에 따른 사림파의 성장과정을 다루었고, 2부는 조선후기 천거제의 정비와 이를 통한 재야유림 즉, 산림의 진출을 검토하였다. 3부는 조선말기 과거제의 개혁방안으로서 천거제의 위상을 살펴보았으며, 4부는 조선왕조 5백년 동안 천거를 통해 관리가 된 4백20명의 성분과 관력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사회·사상의 면에서 천거제가 차지했던 비중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에 있어서 과거제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기존의 통설에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결론짓고 있는 이 책은 앞으로 한국사학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서명:조선시대 천거제도 연구
저자:정구선〈인문대 국사학과 강사〉

생활협동조합의 의의와 구체적 활동

협동의 이념과 자조의 정신살린 자치조직

복지·생활문화향상 도모 각종사업전개

본교는 내년부터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설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관리위원회는 생협준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생협준비위는 생협정관 및 조직확정후에 오는 12월초 생협사업계획의 확정, 발기인회의 구성, 내년 96년 3월에 생협 창립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공관위 위원장인 김진철 교수의 글을 통해 생협의 개념과 구체적 활동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편집자〉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연구에 기반한 전문교육과 실천이라는 생활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여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전문인의 양성 기능 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장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즉 생활공간으로서의 대학인 것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이란 이와 같은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은 대학에서 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협동의 이념과 자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자치 조직을 말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협동의 힘으로 대학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동의 틀이 바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이다.

대학생협을 통하여 우리는 구성원들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협동을 체화한 사람들을 양성하여 대학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학생협 활동을 통해서 사제관계를 개선하고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등 대학생활을 보람있게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모두가 한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에서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당, 정보의 습득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서점, 보다 좋은 물자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장,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 대학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유통 서적의 비치나 절판된 양서의 복간 활동은 대학인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생필품의 공동구매제공 활동은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와 소비문화를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대학생협은 대학의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바람직한 소비문화도 창조해 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물품의 공동구매공급 활동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입과 공급사업을 말한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물자를 몰아내고 안전하고 보다 나은 먹거리와 소비재를 개발·공동구매하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합원들의 구매력을 결집함으로써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 직접 운영함에 따라 사업이익금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를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바른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협동시설 마련 이용사업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생활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대규모 상업광고의 무분별한 범람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학문화의 종속성과 향락주의를 배격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풍토를 형성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대학문화의 건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예컨대, 식당은 보다 나은 먹거리를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생활협동조합은 협동시설마련 이용사업, 생활문화 사업, 환경사업등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새로운 대학사회를 여는 대학문화, 공동체문화를 창조한다.

셋째, 생활문화사업이다.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문화향상을 도모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친목도모와 생협사업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조합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교육 및 강연행사, 여론 수렴 및 의견 청취, 각종 잔치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건전한 생활문화행사, 예체능 경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환경사업이다. 대학생협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에서 실천가능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무공해비누 및 재생공책을 위시한 재생용품들을 활성화하여 환경파괴 상품이나 공해 기업을 경계하는 등의 활동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학술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생협은 이 외에도 대학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한 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숙 및 자취에 대한 정보 제공, 여행정보 제공,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 제공, 특강사업 등 대학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의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같이 대학생협은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불신의 벽이 높아가는 현실 속에서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소비문화 창조에도 기여한다. 향후 대학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새로운 대학사회를 여는 대학문화 창조의 토대인 것이다.

김 진 철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생활협동조합 창립준비 현황

△93년 10월 이전: 학내 복지 매장 및 학우들의 복지를 총학생회 특별기구인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관장

△93.11.4: 다년간의 학복위 사업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에게 공개가 부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학내 주체들이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구성의 필요성 제기, 복지사업 공관위 구성을 위한 실무준비위원회1차 개최

△94.1.13: 학내주체(교수, 직원, 학생, 학교대표)들로 구성된 실무 준비위 2, 3, 4, 5차 회의를 거쳐 공관위 운영규정 마련

△94.3.16: 생활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한시적인 기구로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출범(공관위 1차의장: 김상종교수선임)

△94.6.8: 공관위 2, 3, 4, 5차 회의 거쳐 운영규정 수정 및 공관위 운영위원회와 사업본부로 분리 운영 공관위 6차 회의부터 교수회 위원 선임과 운영위원장에 배형 교수 선임

△95.3.17: 공관위 위상의 확립 및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김진철(정외)교수 선출

△95년 9월: 생활협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구성 학내 각 주체 대표 선정

준비위: 교수회1인, 학교1, 직원1, 대학원1, 학부생2, 공관위1, 대표, 공인회계사로 구성

실무위: 학교1, 직원1, 대학원1, 학부생2, 추천위원, 공관위3

△95년 10월 10일: 생협설립실무위원회 1, 2, 3차 회의 개최

생협교육/홍보예산확정

생협정관초안마련

타대학 현황조사(연세대, 조선대)

△95. 10. 12: 생협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준비위원상견례

생협준비위원회 예산 및 향후 일정 논의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사업장 현황

〈직영매장〉

△자판기: 학내전지역(연락처: 260-3589)

△동국관식당: 동국관L동지하(3587, 3588)

△다향관식당: 다향관1층(3764)

△보리수: 다향관2층(3765) 음료 과자 분식류

△다락방: 혜화관6층(3768) 음료 과자 김밥 라면

△구내서점: 다향관지하(3754) 전공서적 사전 단행본 잡지 등

△화장품코너: 다향관2층보리수내(3765)

〈임대매장〉

△다향관교수식당: 다향관2층(3767)

△동국관휴게실: 동국관지하(3757)

△명진가든: 명진관1층(3756)

△원흥가든: 원흥관지하(3758)

△교재실: 도서관지하(3753)제본

△복사실: 동국, 혜화, 명진, 도서2, 3, 4, 원흥, 학림관

△기획사: 다향관지하(3762) 전산사식, 레이저출력, 복사

△문방구: 동국관3층, 다향관지하(3755)

△안경점: 다향관지하(3759)

△잡화점: 다향관지하(3760) 스포츠용품, 단체복, 삐삐, 의류등

△컴퓨터매장: 다향관2층(3766)

△사진관: 다향관지하(3761)

△이발소: 다향관지하(3763)

△조흥은행: 명진관1층(3584)

()안은 구내 전화번호입니다.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가입방식

△자유가입제(OPEN SHOP)

협동조합의 원칙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조합원은 개인의 자발성과 자주적 의지에 의해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며 이것을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생협들(의료생협, 신용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등은 이 자유 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 대학 생협도 역시 조합원 자유 가입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생협은 좋은 점들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생협의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학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스스로 생협 사무실에 찾아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전원강제가입제(UNION SHOP)

대학생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이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협이라는 조직이 조합원 스스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협의 원칙에 어긋나고 의사도 묻지않고 함부로 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는 연세인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고 탈퇴를 원하는 자에게는 탈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생협이 자유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아직도 전원가입제는 대학생협이 가지는 현 한계점 때문에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뒷골만필

권력지향적 풍토

남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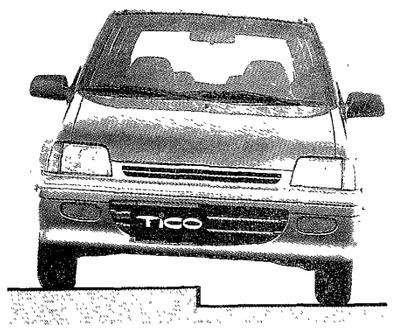
각 나라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미국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직업을, 일본 사람은 자신의 소속을, 그리고 한국 사람은 자신의 직책을 밝히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미국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디자이너 스미스입니다"라고 하는 반면 일본인은 "○○회사의 다나까 입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홍길동 입니다"라고 소개한다. 한국인은 권력, 미국인은 기술, 일본인은 조직을 중요시한다는 문화적 정서적 차이를 극명히 나타내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 최근 우리는 권력지향적인 한 인물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허무함을 한탄하며 반성하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반성의 영역에서 자신은 제외시키고 그 불똥이 자신의 권력상승에 방해가 될까 자기 변명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본다. 한국인은 어쩔 수 없는 권력지향적 성향을 지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인의 이런 정서는 아마도 가정교육에서 시작됐고 그런것이 모여서 이 사회 민족의 정서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효의 마지막을 입신양명으로 배우고 그 양명의 척도를 얼마나 높은 관직에 오르냐로 따지던 우리 전래의 정서가 그 이유가 아닌가한다. 지나치다고 하는 대학입시, 그리고 대학의 학과선택등 모든것이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보다는 출세의 가능성을 예견하여 결정되고 실행되지 않는가? 이런 정서가 잘못됐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런 정서로 인해 민족이 짊어져야 했던 질곡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다원화돼가고 있는 사회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성향을 생각치 않고 권력을 지향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해가 되고 본인도 불행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많은 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권력을 쫓는가? 권력이 있으면 어떤일도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우리의 여건이 원흉이 아닌가 하다. 전문인을 우대하고 각 분야의 역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풍토조성이 우리사회를 빈사상태로 만드는 한국병의 근본 치료가 아닌가 한다. 권력을 위해 자신의 생부까지 주살했던 진시황제가 저승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

불교방송 기자

사랑하면 알게되고 알게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느니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에서—

평소 그가 가고 싶어하던 음악회 티켓을 손에 넣은 나는 의기양양 전화를 했다.
"형, 오늘 나한테 근사하게 한 턱 내야겠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허탈할 정도로 무덤덤. "어? 응, 저 오늘은 집에 일이 좀…"
그제서야 나는 깨닫고 말았다. 언제부턴가 그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하루 이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급기야 하루종일 얼굴 한 번 못보는 날이 많아졌는데, 아~ 센스 김으로 통하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한 달을 고민 끝에 단호히 절교를 선언하는 내게, 그는 뜬금없이 불쑥 자동차 키를 내밀었다.
"만원버스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여 미니스커트 한 번 폼나게 못입어 본다며? 이 오라버니께서 주경야독 고생 끝에 티코 한 대 뽑았다." 세상에 그동안 나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구나 감탄 또 감탄!
쌓였던 화가 봄 눈 녹듯 사르르~ 인도금 10만원에 할부금이 월9만원. 한 달 유지비래야 겨우 버스비 정도라 부모님 도움없이도 가능했다나? 요즘은 그의 티코 덕에 일찌감치 도서관에 자리잡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다 장학금이라도 덜컥 타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티코를 확~뽑아 버려?



마침내 경차보급활성화방안 실시 임박!
면허세,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공영주차장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물론 간선도로변 개규리식주차까지 —
티코만이 혜택받는 티코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TICO
나는 나, 티코를 탄다.

◇드라마 '해빙'의 원작자 안동일과 그의 작품세계

진실보도 애쓰다 사회적 매장 당한 진정한 언론인
기자경험 바탕 사실적으로 북한 묘사한 '해빙'극화

S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해빙'은 같은 제목의 원작소설을 각색한 것이며, 원작자 안동일씨는 북한을 네차례 방문취재한 재미교포 언론인이다. 특히 1989년 평양축전 방북취재를 통해, 입수경양이 자신의 목에 걸어주던 빨간 스카프를 거절했던 사실을 단독보도했던 일로 널리 알려져있다. 벌써 까마득한 옛일로 생각되지만 당시는 제도권 언론들이 방북인사를 연일 용공분자로 몰아가고 있던 공안정국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박철언씨가 평축에 참가했었음이 나중에 드러났듯이 공안정국은 정보통제 속에서만 유지될수 있었다. 서울에 앉은채 쓰는 '창작성 기사'를 통해 입수경양을 '붉은 물이 든 철부지 여대생'쯤으로 몰아가던 제도권언론들의 보도는 안동일씨의 생생한 현장보도를 통해 허구성이 드러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정보독점에 도전한 괘씸죄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기자직에서 떨려났으며, 입수경양 재판때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입국을 시도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김포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프리랜서로서도 그의 기사는 발표매체를 잃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했던 대가는 실직과 사회적 매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의 너털웃음으로 실직의 참담함을 날려버리고 1년내내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4천매를 써냈다. 93년 그의 디스켓을 받아 소설을 검토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실직, 아내와 딸 셋을 거느린 30대 가장으로서 얼마나 참담한 심경일 것인지.

그의 작품은 남북한은 물론 미국 소련 중국 독일 쿠바 베트남 등을 오가며 펼쳐지는 남남북녀(南男北女)의 사랑이 주된 줄거리다. 기자로서 현지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동감이 넘친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무대는 아무래도 유일하게 갈수 없는 땅-북한, 만날수 없는 사람-북한여인일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을 무대로 삼은 작품은 처음이 아니다. 80년대 들어 북한 현대소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출판되었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북한소개 프로가 방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엉뚱한 얘기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여인에게서 '여성'을 느낄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불만스러웠다. 사랑스러워야 관심도 갖고 '바로 알기'의 욕구도 생길 노릇이 아닌가. 내가 북한여인을 사랑할만한 여자로 느끼게 된 것은 그의 주인공 북영을 만나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보지못해서 잘 알수 없지만, 원작을 상당부분 개작해서 시놉시스를 써주었노라고 안동일씨에게 들은 바 있다.

개인적인 사연을 덧붙이는 것이 허용된다면 안동일은 동국대 77학번으로 나와 동기생이다. 나와 그는 동대신문사 그 어두침침한 지하에서 만났다. 재수를 통해 조금은 늙수그레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에게 '지하의 사상'을 주입시키려 노력했고, 본능적인 위험을 느낀 나는 교묘하게 그를 피했다. 그가 반유신 데모를 주도해 수감되고 두번에 걸쳐 재적당하는 동안, 나는 김소월과 김지하 사이를 배회하면서 문학이야말로 내 삶을 바칠 대상이라고 자위했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도 한국에서 반체제시위 경력의 대학제적자로서 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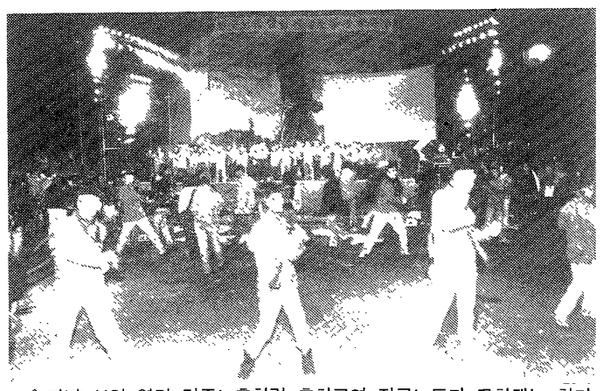
그렇지만 불교도인 그가 늘 입에 담는 말처럼 '선인선과(善因善果)'였다. 그에게 북한취재라는, 언론인으로서 놓칠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워온 전력 때문이었다. 그가 무작정 북경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 북한입국 허용을 요구했을 때, 북쪽에서는 조회를 통해 그의 학생운동 전력을 확인했고, 그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매도하는 기사를 쓸 사람이 아님을 믿고 입국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안씨는 작년에야 모교를 졸업했으며, 마지막 학기때는 모교 강사로 나가던 나에게 강의를 수강하기까지 했다. 출석은 잘했느냐, 시험은 잘 보았던가, 무슨 학점을 주었느냐고 묻는 선후배들이 많다. 내 대답은 늘 '노코멘트'.

한 만 수
〈문과대 국문과 강사·문학평론가〉

◇민주노총 노동자 문화제를 다녀와서

노동자 불굴 투혼 보여준 한판 어울림
외국인도 참가 '근로기준법 적용' 외쳐



◇지난 11일 열린 민주노총창립 축하공연 전국노동자 문화제는 참가 노동자들의 뜨거운 함성속에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국 1천만 노동자들의 기쁨, '민주노총 창립 전국 노동자 문화제'가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2만여명의 참가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1부는 '우리의 염원! 민주노총! 상징의 의식'이라는 주제로 노동투쟁으로 목숨바친 열사들의 한을 달래주는 씻김굿과 꽹과리의 급박한 장단에 맞춰 노동자의 불굴의 투혼을 보여준 열사굿으로 한판어울림은 펼쳐졌다. 이후 희망의 노래 꽃다지의 공연으로 1부 순서는 마쳤다.

2부에는 12개 지역노조팀의 문화경연대회속에 도깨비 가족들이 노동탄압을 풍자한 광주지역금속노조팀이 우승을 했다. 문화경연중에 민주노총 창립을 축하하기위해 IMF 사무총장등 외국에서온 20명의 노동자 대표들이 "연대투쟁, 민주노총 만세"의 구호속에 그 열기가 확고한 투쟁의 결의로 다져지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현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치며 네팔 민속노래 '라쌈 빠리리'를 불렀다.

한편 전태일 분신 25주기를 맞아 제작된 영화 전태일 예고편이 상영된 가운데 홍경인과 대화시간을 갖고 노동자와 한판 어우러짐도 있었다. 이에 최도은과 안치환의 축하공연은 열기를 더욱 북돋웠다.

노동자들은 신나는 노래가 나올때마다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옆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며 보냈던 많은 시간, 그 속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며 노동자 문화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허민희 기자〉

허포크라테스와 허준 —VDT증후군

컴퓨터·타자기 사용자들에게 쉽게 발병
증상예방에 올바른 기계배치 필요

정 해 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VDT(Video display Terminal)'이란 브라운관 화면을 통해 정보가 입출력되는 모든 기기를 통칭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보급이 급증한 컴퓨터가 이러한 VDT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VDT증후군'이란 컴퓨터나 타자기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단조롭고 반복적인 노동 및 관련 업무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되는 제 증상과 질환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VDT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주요한 건강 문제들의 증상과 원인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견완상해 및 신체적 영향인데, 주로 늘 사용하는 보다 넓은 부위의 근육에서 나타나며 목과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등의 근육이 결리거나 저리거나 아픈 증상과 허리의 통증 등이 나타난다. 근육의 힘이 없어지고 붓고 얼얼한 감각을 느끼거나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작업환경 및 도구의 배치, 반복적인 작업 등에 의해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눈에 대한 영향인데, 주로 눈이 따갑고 시리거나 벌겋게 충혈되거나 가렵고 쓰라린 경우 이외에도 머리가 무겁고 아프면서 눈에 통증이 오는 경우, 심하면 어지럽고 구토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눈의 증상의 원인은 VDT화면의 눈부심(glare)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주변 조명과 화면 밝기의 차이로 인한 화면의 반사, 화면의 상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등도 눈의 피로의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다. 모니터의 양이온선관(Cathode ray tube, CRT)에서는 여러종류의 방사선이 낮은 강도로 발생한다. VDT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 직업자의 경우 VDT작업시 자연유산, 기형, 불임, 백내장 등이 VDT 이외의 작업을 할 경우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VDT증후군은 증상의 초기에 제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증과 무기력이 장기화하여 컴퓨터의 사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평소 컴퓨터의 사용시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우선 컴퓨터의 선정시에는 전자파의 차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화면 보안기도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는 이전에 쓰던 책상 위에 그냥 놓고 쓰는 것보다는 전용 책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니터는 본체위에 얹어 두는 것은 좋지 않으며 화면의 위치가 눈높이 보다 아래로 내려오도록 타워형의 본체를 사용하거나 본체를 책상 아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니터 스크린상에 직사광선이 쬐거나 실내 조명이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의자는 높낮이의 조절이 가능하고 발밑에 발받침을 두어 앉았을 때 무릎의 높이가 엉치관절의 높이보다 위쪽으로 오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컴퓨터를 사용한 작업은 타자기와 달리 줄바꿈을 위해 쉴 필요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손의 휴식이 없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일정 시간 작업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대개 50분간 작업 후 10분 정도의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오른손 손가락의 부담이 과다하기 쉬우므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바꾸어 사용해 보는 것도 오른손의 부담을 분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자법을 올바르게 익혀 열개의 손가락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계속적인 작업에 따라 몇가지의 한정된 근육의 집중적인 혹사가 오지 않도록 평상시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 신체의 모든 근육이 골고루 사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도중 휴식시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가벼운 맨손체조 등을 통하여 무리하게 사용된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늘려주고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달하나 천강에

정보사회에 스며드는 어둠을 밝히자

스산한 바람에 뒹구는 나뭇잎을 바라보던 한 젊은이는 취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즉석에서 모기업체의 면접에 임한다. 늦은 밤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유명인사와 대형화면을 통해 오랜 대화를 나눈다. 천문학을 강의하는 어느 교수는 최근에 발생한 혜성 충돌 장면을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입수한다. 관광안내소를 들른 외국인은 조그만한 터치스크린 화면에서 손끝으로 원하는 정보를 들고 읽어보기도 한다.

정보사회라는 말은 진부화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는 무언가 고도의 지식·지능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또한 하나를 익혀두면, 얼마후 새로운 것이 나와 버린다. 다시 배워야 하는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은 기술발전 및 상업화와 더불어 대량으로 생산·보급되기 마련이다. 나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문제의 증상이 아닌 근원을 보라. 해답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곤 한다.

컴퓨터와 통신이 주축이 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제 명령어를 일일이 외우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다가가고 있다. IBM의 거스트너 회장은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의 통신 및 업무환경뿐만 아니라 삶과 배움의 질까지도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손끝으로 만사를 해결하는 컴퓨터 천국이 정보사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 예를들면, 교통·환경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는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다차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정보사회의 순기능적 측면 배후에는 그 역기능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컴퓨터에 의한 감시는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는 한편,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조지 오웰의 "1984", 텔레스크린을 통해 모두를 감시하는 빅 브라더를 상상해 보라. 또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비승인된 정보의 양도·컴퓨터를 통한 화폐 절도 등의 컴퓨터 범죄는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사회의 역기능적 측면을 상상해 보라.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과 어울리기도 전에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고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기성세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공간을 형성한다. 연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이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사고 및 행동의 차이는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 또한 청소년들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마약·섹스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자본·토지·노동과 더불어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느 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형산강 수질오염에 대한 발표를 들은 적이 있다. 발표자는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은 맑다"고 말했다. 세미나가 끝난후, 그 교수에게 사실이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강물은 흘러가면서 정화된다"고 답했다. 갑작스런 원고 청탁에 응하여 지금껏 정보사회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제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컴퓨터 장치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것 컴퓨터관련법을 통한 통제와 예방, 열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옛말을 되새겨 보라. 정보사회의 역기능은 무엇으로 정화될 수 있는가? 사회전체의 합의를 통한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주 재 훈 자연대 정보산업학과 교수

윈도우95 UPGRADE는 소프트라인에서 PC보상 UPGRADE 역시 소프트라인에서

소프트라인

소프트라인「펜티엄」120Mhz ▶99만원

윈도우 95용 펜티엄 전문가용 NEW

PC 보상교환 대축제

갖고계신 구형PC를 가져오시면 Pentium으로 교환 해 드립니다.

1.펜티엄「SoftLine120」사양

메인보드	Micronics
CPU	Intel Pentium 120
Memory	8MB RAM
Video	PCI 64bit VGA
HDD	고용량 1GB
FDD	Dual (3.5" & 5.25")

2.펜티엄「SoftLine120」

보상제품(PC·모니터)	S/L 펜티엄 120
메이커486SX/조립품486DX	99만원 (VAT별도)
메이커386DX/조립품486SX	109만원 (VAT별도)
메이커386SX/조립품386DX	114만원 (VAT별도)
메이커286 /조립품386SX	119만원 (VAT별도)
※키보드를 포함해서 작동가능한 VGA급 이상 시스템이어야함	
중고14" 칼라▶17" 칼라	43만원 (VAT별도)

SoftLine「Pentium90」시리즈

1.펜티엄「SoftLine 90」사양

제품명 / 사양	Pentium 90T 일반형	Pentium 90H 전문가용
CPU	90	90
Memory	8MB	8MB
Cache	256KB	256KB
Video	PCI 64bit	PCI 64bit
HDD	850MB	1GB
콘트롤러타입	EIDE	EIDE
FDD	3.5"	3.5" & 5.25"
가격	109만원	129만원

세계정상의 AcerAcros시리즈

- 메인보드 최대 150Mhz 지원 •CPU Intel Pentium
- Memory 8MB RAM(16줄선) •Video:1MB(2MB옵션)
- FDD(2개)·Dual(3.5" & 5.25")•슬롯 논리형슬롯,어듀분8개
- HDD 850MB (1GB,1.27GB옵션)
- 한글도스6.2, 한글윈도우 3.1 외 다양한 각종 S/W

■ AcerAcros 75 + 옥소리 멀티킷트 1,474,000원
■ AcerAcros 90 + 옥소리 멀티킷트 1,617,000원
■ AcerAcros 100 + 옥소리 멀티킷트 1,771,000원
■ AcerAcros 120 + 옥소리 멀티킷트 1,980,000원
■ AcerAcros 133 + 옥소리 멀티킷트 2,134,000원

※ 상기금액은 VAT·모니터별도 금액입니다

SoftLine 90 옥소리 멀티형

■ Intel 90 Mhz Pentium Processor
■ 8MB RAM, expandable to 128 MB
■ Intel Triton chipset (INTEL Board)
■ 256/512 Write Back Cache
■ Phoenix BIOS
■ 2 PCI IDE Connectors for 4 drives support
■ 1GB,high performance Enhanced-IDE hard drive
■ 3.5" & 5.25" Diskette Drive
■ ATI Mach 64-bit graphics accelerator
■ 1MB Video RAM
■ 옥소리 환상특급-멀티키트
•옥소리 32폴리 사운드카드 •CDG지원 A/V 4배속 Drive
•음성인식 WSS •스크린영어 외 초·중·고
•영어타이틀 중 택일 •11만원 타이틀 선택권
•타이틀할인권 10매
•멀티미디어 S/W 모음 & V-CD영상모음
■ 14,400 bps Fax Modem
■ 103키보드 & 마우스
■ 윈도우용 WP & 소프트라인 슈퍼-CD 제공
■ 11만원 상당의 CD-Title 및 Game 무상교환권

가격 : 145만원 (VAT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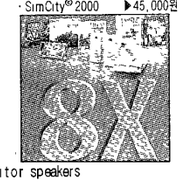
SoftLine 100 옥소리 멀티형

■ Intel 100 Mhz Pentium Processor
■ 8MB RAM, expandable to 128 MB
■ Intel Triton chipset
■ MICRONICS M54Hi PCI/ISA System Board
■ Pipelined Burst Synchronous Cache
■ Upgradeable Flash Phoenix BIOS
■ Complete Windows 95 Compatibility
■ 1GB,high performance Enhanced-IDE hard drive
■ 3.5" & 5.25" Diskette Drive
■ ATI Mach 64-bit graphics accelerator
■ 1MB Video RAM
■ 옥소리 환상특급 - 멀티키트
•옥소리 32폴리 사운드카드 •CDG지원 A/V 4배속 Drive
•음성인식 WSS •스크린영어 외 초·중·고
•영어타이틀 중 택일 •11만원 타이틀 선택권
•타이틀할인권 10매
•멀티미디어 S/W 모음 & V-CD영상모음
■ 14,400 bps Fax Modem
■ 103키보드 & 마우스
■ 윈도우용 WP & 소프트라인 슈퍼-CD 제공
■ 11만원 상당의 CD-Title 및 Game 무상교환권

가격 : 155만원 (VAT별도)

SoftLine 120 "Diamond"

■ 초고속 28,800 bps Fax Modem
■ Intel 120Mhz Pentium Processor
★ 16MB RAM (128MB까지확장가능)
■ 세계최강의 Micronics메인보드
■ Intel TRITON chipset
■ 256K Pipelined Burst Cache
■ Upgradeable Flash Phoenix BIOS
★ 1.2GB Fast Hard Disk Drive
■ 3.5" & 5.25" Diskette Drive
★ 2MB VRAM Diamond Stealth 64PCI Accelerator Card
★ 8배속 CD-ROM
·8X speed CD-ROM drive
·1,200 KB/second transfer rate
·230ms access time
·256KB buffer
·Fully multi-session XA Photo CD compatible
★ 3D WAVETABLE SOUNDCARD
★ 투윙시네마 M-PEG 카드
■ 103 키보드 & 마우스
★ 15' 고해상도 평면 칼라모니터
★ YAMAHA Speakers
·Yamaha YST-MS powered monitor speakers
★ Software utilities for recording, mixing and editing audio
■ 무상제공품목
·한글 DOS 6.2 & 한글윈도우 3.1
·한글윈도우 95 ▶275,000원
·이벤한원상당의 소프트라인슈퍼-CDII
·Myst™ ▶66,000원
·Compton's Interactive Encyclopedia™1996▶165,000원
·Rebel Assault™ ▶48,000원
·Magic Carpet® ▶45,000원
·SimCity® 2000 ▶45,000원



가격 : 299만원 (VAT별도)

공통OPTIONS
■ 15" 고해상도 평면칼라 모니터 ▶27만원 (VAT별도)
■ 0.27 mm Dot Pitch, 17" 모니터 ▶48 만원 (VAT별도)

컴퓨터전국역삼본점(삼성주택문화관)
■ 1층 소프트웨어,CD-TITLE,Game관 ■ 4층 영업본부
■ 2층 멀티미디어,주변기기,소모품관 ■ 5층 고객지원실
■ 3층 컴퓨터관(Tel (02)5080-134/5080-114)

제10회 Computer Trade Show 안내▶1995년 11월 26일 오전9시~오후6시 롯데호텔 소공점 2층◀컴퓨터 전제품 SALE! 당일 행사장에 오시면 컴퓨터는 물론 "한글윈도우95", "오피스95" 와 "한글3.0b" 를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프트라인 The Leader in Computer Business

전국 공인대리점

서울지역
강남구 소프트라인 02)557-9287
영등포구 소프트라인 02)635-0946
서초구 소프트라인 02)571-1340
도봉구 소프트라인 02)900-8633
용산구 맥스미디어 02)711-0477
미래소프트 02)701-3750
조인정보 02)703-4711
노원구 소프트라인 02)952-7570
양천구 소프트라인 02)654-0111
경기.인천지역
인천 소프트라인 032)816-9959
동암컴퓨터 032)427-5156
부천 소프트라인 032)342-9832
산본 발해컴퓨터 032)668-0606
성남 소프트라인 0342)734-7464
관보컴퓨터 0342)703-8245
수원 소프트라인 0331)254-7835
안산 소프트라인 0345)492-4663
안양 소프트라인 0343)41-1978
썬버드 0343)56-9677
안성 소프트라인 0334)72-4085
일산 소프트라인 0344)915-6071
평택·송탄 소프트라인 0333)665-4706
강원지역
인제 소프트라인 0365)461-4186
속초 소프트라인 0392)635-5554
컴퓨토피아 0392)636-3174
충청도지역
천안 소프트라인 0417)62-0389
청주 소프트라인 0431)65-6588
충주 소프트라인 0441)848-5594
전라도지역
광주 소프트라인 062)376-6011
소프트랜드 062)228-2310
푸른시스템 062)225-0493
순천총판 소프트라인 0661)742-6220
공양산 소프트라인 0667)793-6817
익산 소프트라인 0653)858-0767
화순 소프트라인 0612)73-8367
정읍 고창 소프트라인 0681)537-7040
경상도지역
부산 예일문화원 051)633-4242
드림컴퓨터 051)866-4677
한국컴퓨터 051)462-6818
한빛테크노 051)802-0904
컴퓨터천국 051)853-1850
소프트라인 053)953-7266
대구 소프트라인 0551)67-3851
구미 소프트라인 0546)455-5121
마산 안동총판 소프트라인 0571)54-8720
하동 소프트라인 0595)84-0159
진주 소프트라인 0591)41-2824
예천 소프트라인 0584)655-8503
경주 소프트라인 0561)773-0574

전국직영점
·용산관광터미널 1층 대형판매장 :02)715-0001
·강남구 역삼동 소프트라인 :02)5080-114
·종각전철역 보신각 뒤 컴퓨터클럽 02)733-5777
·교보문고내 소프트웨어 판매코너 :02)733-6490
·영풍문고내 소프트라인 매장 :02)399-6365
·부산 소프트라인 :051)502-5377
·대전 소프트라인 :042)222-4020

◇박물관 문화재 관리를 점검한다.

◇박물관 소장 보유의 유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위 사진은 석보살입상 위에 있는 벌레이다.

공간 협소·1년에 두번 대청소

'존귀하신 부처님'엔 먼지옷과 벌레장식

30여년의 역사와 국보 및 보물의 소장을 자랑하는 본교 박물관이 열악한 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동대박물관'이란 명패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입구의 녹슨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3분의 1쯤 나간 조명 탓인지 침침함을 느끼게 되고 바닥 군데군데 뜯겨진 장판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걸려넘어질 위험성까지 안고있다. 집진시설이 없어 전시물은 먼지를 쓰고 있으며 제습기 대신 물먹는 하마가, 환기시설 대신 창문이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존엄하신 부처님' 몸에 집짓고 사는 거미와 이름모를 벌레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박물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유물의 보안상태를 들 수 있다. 현재 도난방지시설의 일부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설치해준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고장상태를 방치중이며 낮에는 관람객으로 인하여 도난방지시설 작동도 못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예술대건물의 철거로 인한 예술대관련 사람들의 임시 사용으로 건물의 이용자가 늘어나 일일이 눈으로 감시해야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또한 박물관 건물 창쪽으로 길게 연결된 나무가 박물관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나무제거 요청에 학교측은 가지치기로 대응했다고 한다.

두번째 문제로는 박물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시설의 미비와 공간의 협소를 들 수 있다. 현 박물관은 예전의 계산관으로서 박물관이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시설 즉, 집진시설, 환기시설, 제습기, 화재방지시설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도난방지시설은 위에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또한,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불화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전문적인 전시실과 수장고를 지닌 새 박물관을 짓는 것"이라고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마지막 문제로 관리상황을 들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조명, 청소 등의 문제들은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것들이다. 박물관 청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2년에 한번 유물소독, 1년에 두번 대청소, 매일 바닥에 기름걸레질 하는 수준이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청소관리가 어렵다"는 수위경비원의 말이 왠지 석연찮다. 또한 조명에 필요한 전구를 요청해도 왜 학교측은 공급해주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뜯겨진 장판은 언제 그 흉한 몰골을 감추게 될지……. 이러한 관리상태에 관해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일에비해 일손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외국인과 외부인의 방문을 자랑하는 박물관이 관람객을 위한 팜플렛 하나 없는 것과 전시물의 이름과 시대표시로 끝난 고정안된 스티로폼 설명판이 박물관의 처지를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박물관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박물관측은 예산신청을 통하여 요구하였지만, 학교측에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제습기설치 신청은 해 놓은 상태라 한다.

유물을 소중히 관리해야할 책임감은 물론이거니와 박물관의 활성화는 불교종립인 본교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며 외부에 본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준다. 또한 학우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일 것이다.

〈취재부〉

학내 도난사고 심각

빈 연구실·학회실 수시로 일어나

학내 도난사고가 심각하다. 주로 빈 학회실에 컴퓨터 부속품이나 지갑등이 없어져 서로의 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내외로 집회가 많았던 지난 9월과 10월에 특히나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불교대의 경우 지난 9월30일에 있었던 5·18집회 당시 학생들이 가방을 학회실에 두고 집회에 참석한 사이에 지갑과 현금을 모두 잃어버렸고 문과대 또한 학생회실에 도둑이 들어 책과 지갑을 도난당했다.

도난사건이 15번정도가 된다는 식물자원학과의 한 학생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간 사이에 물품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으나 학회실 문을 잠그고 다닐 수 없다"며 "학회실에 중요한 물건을 두지 않고 서로 서로 신경을 쓰는게 가장 중요한 도난방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학회실에 놓아둔 가방이 없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컴퓨터 부속품 도난 사건이다.

컴퓨터 본체는 그대로 두고 본체안에 있는 RAM, CPU, 하드 등만을 전문적으로 빼가는 황당한 일을 한번쯤은 모든 학과가 경험을 했을것이다.

가장 많은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는 학림관에서는 그 심각성이 크다. 학회실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실 열쇠가 여러개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도난사건이 빈번한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터는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공과대의 경우는 특히 컴퓨터 기자재 도난사건이 많아 학회실을 나올때 '열쇠 잘 잠그기'를 요구하고 있다.

응용생물학과의 한 학생은 "컴퓨터 안에 내장품이 없어진 일은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계속적으로 RAM등만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전문적인 외부사람의 소행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한편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는 지난 9월17일, 11월10일 두차례에 걸쳐 도난사고를 당했다.

학복위측은 "값나가는 물건이 몇개 있어서 적어도 한명은 남아서 지키지만 잠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며 "시가 21만원과 81만원에 해당하는 컴퓨터 램16메가, 램32메가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건물 경비의 강화뿐 아니라 구성원들 서로서로의 주의와 학회실 문단속이 도난방지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양심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향관 도난 빈발

다향관 건물 내부에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 구내서점, 안경점, 문구점등에서 대처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 밤과 9일 아침 사이에 발생한 물품및 도난사고로 다향관 건물내의 매점과 사무국은 도난방지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매장은 공관위 사무국, 구내서점, 보리수, 안경점, 문구점이며 도난 품목은 현금 2백21만원, 컴퓨터 3대, 레이저프린트 1대, 도서상품권 1백88장,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안경테 5장, 전자계산기 2대등이다.

공관위는 업무적으로 컴퓨터 도난사고로 인해 며칠동안 전산작업이 안되었으며 현재 50%복구가 되었고 이달말에 원상복귀될 예정이다.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계산고시학사(사감=이순용·법학)는 오는 12월23일에 96학년도 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을 갖는다.

현재 본교 재학생과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발인원은 60명으로 각 과목당 40점이상이고 평균이 60점이상인 자를 뽑게 된다.

제11대 총여 서정은·조윤숙조 당선

"학우들의 총여에 대한 인식 넓혀나갈터"

제11대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으로 서정은(역교3)·조윤숙(국민윤리2)조가 당선됐다.

개표결과 단독출마한 서정은·조윤숙조는 2천2백99명의 총유권자중 1천5백28명이 참여한 가운데 1천3백13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당선이 확정되자 서·조조는 "단독후보라 처음에 별로 긴장은 되지 않았으나 마지막에는 투표율이 저조해 다소 걱정이됐다"고 말하고 "선거기간동안 여학우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그동안 총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과 실천및 조직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작년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제10대 총여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부족함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앞으로 학우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많은 행사와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선거에 두가지 기조로 내세웠던 '총여의 인식확대'와 '학희강화로 이어지는 총여 단위건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조조는 △강의실밖의 강의제도마련 △P·C통신 의견 수렴란게제 △학회강화를 통한 단위건설 △'동악여성'모니터 제도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개토왕비…탁본집성'간행

쟁점문자 등 1백76자 새로 해독

'광개토왕비원석초기탁본집성'(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저자=임기중·국문학)이 오는 30일 출판부에서 간행될 예정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에서는 물론 세계학계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었던 4종의 원석초기탁본(석회칠로 변조하여 탁본을 떠내기 이전에 탁본했던 본래 모습의 탁본)을 수록하고있어 교내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초기원석탁본은 저자인 임기중교수가 지난 '93년 중국대륙에서 처음으로 찾아냈으며, 그후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글자를 1백76자(총글자수=1천7백75자)나 새로 읽어내고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에서 지적한 새로 읽은 글자중 지난 백여년간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쟁점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일례를 소개하면, 비문 제1면에서 9번째줄 13번째 글자는 사(泗)자라는 주장이다. 이 글자는 일본이 일찍이 해(海)로 읽고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신민(臣民)으로 삼았다'고 풀이하여 일제의 한국 강점을 합리화하려는 정한론의 근거가 됐었다.

그러나 임교수는 이 글자를 사(泗)로 읽어냄으로써 '왜가 신묘년에 와서 사물(泗水:현재 경남 사천)을 건넜기 때문에 고구려가 왜를 쳐부수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있다.

이러한 해석이 학계의 인정을 받을 경우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임나일본부설'을 일소할 수 있다.

저자인 임기중 교수는 "새로운 해석은 이미 일본, 중국등에서 인정받은 초기원석탁본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며, 글자 해독역시 1층의 원석탁본을 동시에 비교하는등의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규휴의 '고구려호태왕비집석'(高句麗好太王碑集釋)을 소개하고 있다. '고구려호태왕비집석'은 광개토왕릉비 최고의 탁본 실상과 같은 해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희귀한 자료로 지난 '93년 임교수가 북경대학에 파견될 당시 발견한 자료이다.

국내에서 86년 이형구 박노희가 '광개토왕비 신연구'를 펴낸것외엔 뚜렷한 연구가 없었던 실정에서 이번 '광개토왕비초기탁본집성'의 출판은 내용과 의의에서 혁신적 의미를 띠고 있다.

좌선법회 수련회 양주군 불암사에서

정각원이 주최하는 제3회 좌선법회수련회가 오는 12월1일과2일 양일간 경기도 양주군 불암산 불암사에서 열린다.

심신수련을 취지로하는 이번 수련회는 교수·직원과 좌선수련회원중 참가희망자들이 참가한다.

화·전·무·대

욕나오네

○…'머리도 채우고 주머니도 채우고'라는 광고를 따라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어느 영어학원을 찾아간 동악의 한 학우.

결국은 허무함에 머리도 비고 차비때문에 주머니까지 비어 버린채로 돌아오고 말았다는데.

이유인즉 그 영어학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십만원상당의 영어테이프를 사야한다'는 야비한 상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에 열받은 그 학우의 한마디 "Oh shit!!"

좀 뗍시다!

○…동악은 대자보 천국(?)

선거 덕분에 대자보의 홍수속에 파묻혀 살아야만했던 요즘

강의실 밖 뿐만 아니라 강의실 안에도 날짜가 훨씬 지나버린 대자보가 며칠째 그대로 붙어 있어 수업을 듣는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데.

이같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은 대자보가 한 둘이 아니라서 문제라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아우슈비츠

○…본교에 가스실이 있다(?)

과학관 화학 실험실이 작동안되는 환풍기로 인해 학우들이 여러 약품 냄새에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데.

화학 실험시간이면 환풍기가 작동이 안돼 약품 냄새와 연기로 자욱해 실험실인지 가스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약품냄새에 정신을 잃어가던 학우 "여기가 히틀러때의 독일이냐(?)"며 일침.

못 찾겠다 꾀꼬리

○…어렸을 적 누구나 신발찾기 게임은 해보았을터.

이것의 변환인양 도서관에서 책찾기게임을 한다는데

알아본즉 학우들 사이에 자신이 필요한 책을 남들이 못찾게 숨기는 행위가 공공연하다고

글쎄~. 이 행위가 학구열로 치부되어 웃어넘길 일인지.

'숨긴다 = 秘'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학생 왈 "바늘도둑 소도둑될라"

문화예술대학원 지도자과정 모집(야간)

1. 모집분야
문예창작·연극·영화·불교미술·불교음악·문화재·환경예술·건축디자인

2. 지원자격
①언론·문화·예술·연예인 ②인간문화재와 그 후보자 ③환경·조경·건축디자인 및 유관기관 임직원 ④위 관련기업체의 종사자 ⑤기타 이와 동증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95.11.6(월)부터

4. 교부 및 접수처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

5. 전형일시'95.11.25(토)10:00

6. 전형방법:면 접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02)260-3606~7
문화예술대학원

공 고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며 동악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누구나 부르기 쉽고, 한번만 들어도 그 장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참신한 "사업자명칭"을 공모합니다.
※당선실례:다향관 2층 휴게실→보리수
1. 공모대상
가. 식당부문-다향관 학생/교수식당, 동국관 학생/교수식당, 학술문화관 개장 예정 식당등
나. 매점 및 휴게실부문-동국관 휴게실, 명진가든, 원흥가든, 혜화관 다락방 매점등
다. 서점부문-구 만해서점
2. 접수기간:1차접수-95.11.15(수)~11.22(수)
2차접수-95.11.23(목)~11.30(목)
3. 접수마감:95.11.30(목) 오후 5:00까지
4. 접수서류
가. 명칭
나. 명칭의 설명(원고지 약3~5매분량)
5. 공모요령
가. 전체매장에 대하여 각 응모할 수 있음
나. 공모 부문별로 통칭하여 응모할 수 있음
다. 서류제출시 인적사항 및 연락처 명시 요망
6. 공모당선 시상
가. 각부문 최우수1편-이십만원(200,000원)
나. 각부문 가작 1편-일십만원(100,000원)
※응모하신 모든분에게 참가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작과 시상 일정은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접수 및 문의처: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사무국(다향관 지하)
☎(교내)260-3590(2)
FAX(02)271-3129
동국대학교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생활협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이번주 금요일은 '캠퍼스 차 없는날'입니다

결선투표 공고

제28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투표결과 과반수 지지를 획득한 자가 없기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선투표후보자:박동민·박창민조
유병문·황인구조
투 표 일 시:11월20일(월)13:00시부터
22일(수)13:00시까지

1995년 11월17일
제2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강신청 공고

'96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95.11.29(수)~12.1(금) 3일간
2. 수간신청서 교부 및 접수: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 상:'96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전원
4. 유의사항
가. 교과목의 학수,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다. 제1학기 개인별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부받기 바람.

1995.11.18
교 무 처 장

◇세계화 지향 프로그램을 진단한다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기획

우리나라 모습 올바로 알려야

◇근본적인 고민 없는 세계화 지향 광고, 프로그램들이 범람하고있다.

"내가 세계일류면 나라도 세계일류"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시계를 5분 빨리 맞춰놓고 외국 바이어를 기다리는 샐러리맨, 환경보존을 위해 쓰레기를 줄인다며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는 주부, 정보경쟁에서 뒤지지 않기위해 컴퓨터를 다룬다는 대학생, 영어 한마디라도 해야 외국 손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며 차 안에 생활영어 테잎을 틀어놓은 운전사. 모두 '세계일류' '국가경쟁력'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모범인물들로 공보부에서 내세운 사람들이다. 그럴 듯한 장면들로 '세계화'라는 것이 아주 쉽게 간단한 일인듯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일류'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의 썩은 모습이 회자되고 있는 방송매체에서 실(實)은 없이 허(虛)만 보이는 이른바 세계화 지향 프로그램(이하 프로) '[illegible] 특급 세계로 미지로'를 한 번 보자.

토요일 오후 5시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 프로는 연예인 두 명이 우리나라 토산물등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며칠을 보내면서 그 상품들을 외국의 물건과 바꿔오거나 돈을 받고 파는 모습을 담아 시청자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서의 해프닝을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윤은 모두 모아서 유니세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멋진 연예인과 조금 떨어지는 연예인을 짝지었을 때의 기괴함에서 오는 웃음, 외국인과 언어소통이 안되는데서 쏟아지는 웃음, 그리고 돈까지 벌어 굶고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이 프로의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점 지적을 위해 이미 알려진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를 먼저 보면 노동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할 수가 있지만, 일터를 찾아간 연예인이 직접 노동을 하여 그 댓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에 쓰기 위해 모으고 있다는 점이 '세계로…'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세계로…'는 우리나라 상품을 팔기 위해 노동(판매행위)을 하는 것이 중점이라기 보다 찾아간 나라를 보여주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하는 바디랭귀지의 재미있음을 더 강조하는 듯 하다. 영어권이 아닌 아프리카 쪽을 찾아간 모 가수는 우리의 조그만 상품과 그 나라의 커다란 상품을 맞바꿨다고 좋아하기만 한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간 데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르게 알려내자는 의도가 깔려있을 텐데도 말이다.

또하나는 프로제작에 사용되는 경비문제인데, 연예인과 스탭들이 출국하고 며칠을 보내는데 드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닐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분을 여행사와 항공사가 대고 있다고는 해도, 가서 벌어오는 돈이란 몇십만원에 지나지 않으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아닐 수가 없다. 제작비가 유니세프 기금으로 전액 지출된다면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적해봤는데, 진정한 세계화를 지향하고 세계일류를 꿈꾼다면 광고든 텔레비전 프로든 간에 근본적인 고민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유리 기자〉

영화의 패러독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현재·과거 뒤섞인 화면 처리

사람들속에 살아있는 전태일 나타내기 위해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이제 신화가 되었다. 1970년 평화시장의 평범한 노동자였던 한 청년이 22살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죽어갔던 그 일화는 그 이후 이 땅의 노동현장과 정치적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태일의 존재 역시 지워져 갔다. 박광수 감독의 영화 '전태일'은 사반세기가 흘러간 시점에서 그 신화를 영화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전태일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물론 전태일이지만 그의 삶을 기록하는 작가가 나온다. 김영수라는 이름의 작가는 전태일 죽은 5년후로 설정되어 있다. 이 영화는 그 작가의 시점에서 전태일의 과거를 추적해 나간다. 작가의 시점은 바로 관객의 시점이다. 작가가 활동하는 1975년은 칼라로, 전태일이 나오는 과거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되었는데, 현재와 과거는 칼라와 흑백으로 뒤엉켜 있어 어디까지가 현재고, 어디까지가 과거인지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현재의 회상속에 과거가 넘나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감독이 의도한 주제와 관련이 깊다. 감독은 전태일의 이야기를 단지 과거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알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주제는 전태일의 죽음과 그 부활인 것이다.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죽음의 순간과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는 70년대의 억압된 정치, 사회적 현실과 그 분노를 표현한다. 반면 이 영화 전편에 걸쳐 끊임없이 쏟아져내리는 비의 이미지를 읽어내야 한다. 만물의 소생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암시하는 비의 이미지는 축축하고 암울한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성스러운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비는 억압과 해방의 의미를 동시에 싣고있는 역설의 상징이다. 이 영화는 유난히 많은 비의 이미지로 뒤덮혀 있다.

이 영화의 묘한 역설은 영화속에서 현재로 표현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이라는 것인데, 감독은 그 현실공간을 지금 90년대로 동화시켰다는 것이다. 전태일이 죽은 이후 5년후나 25년후나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은 전태일이 죽은 정확한 이유와 왜 또다시 전태일이 살아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전태일의 죽음은 아주 작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화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근로기준법을 외치면서 죽어간 한 노동자일 뿐이다. 노동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은 비단 전태일 한명만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로로 쓰러져간 이름없는 노동자들의 수많은 넋들과 전태일의 죽음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전태일의 죽음은 외침이었다. 전태일은 죽음을 통해 비겁하고 부끄러움을 타던 주변의 동료들과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미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제2, 제3의 전태일로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전태일'주인공 홍경인군을 만나

꿋꿋한 전태일 인상 맘에 들어 출연 결심

"나만의 것 찾는 연기할 것"

"분신장면을 찍고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반족을 느꼈습니다"

전태일역을 맡은 홍경인군이 분신장면을 연기하고 나서의 감회다.

올해 본교 연영과에 입학한 홍경인군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출연하면서부터 지금은 누구에게나 물어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지금은 '젊은이의 양지'를 마친 상태이지만 영화 '피아노행'촬영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바쁜 모양이다.

또 TV보다 영화가 좋다는 그는 영화를 다 찍고나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화를 찍을 때는 고생이지만 완성된 필름을 볼때의 느낌은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도.

지난 18일 서울 몇개의 극장에서 막을 올린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영화한 것으로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작품인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최소의 개런티로 만든 영화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태일역에 대한 욕심과 그와 흡사할 정도의 외모로 주인공으로 발탁된 그는 노개런티 출연으로 그 영화에 대한 열의를 작게나마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태일에 대해서는 70년대 분신자살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영화사에서 들려준 작품에 대해 알고 문성근 선배의 권유로 공개 오디션에도 참가했어요. 또 전태일의 꿋꿋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구요"라고 이 영화에 출연계기를 꺼낸다.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전태일의 친구, 동생, 어머니,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객관적인 업적보다는 인간성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의 사생활에 대해 알고, 영화 또는 "인간에 대해 그렸다"며 학생들에게는 이 영화를 운동권 영화로 보지 말고 그 인물에 대한 삶을 조명한 것으로 봐 주기를 당부한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홍군은 노동자들의 작업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몸소 느꼈다.

"햇볕이 안들고 먼지만 날리는 세트장에서 5~6시간 계속해서 촬영하다가 1시간 쉬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노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하루에 13~14시간씩 지하실에서 일하고 지금 상황도 예전과 같다고 해요"

앞으로 특별히 출연하고 싶은 영화는 없다며 이것저것 골고루 어떤 연기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배역에 대한 편견이 없음을 엿볼 수 있었다. 영화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큰 홍군은 능력이 된다면 '나만의 것'을 찾는 연기를 하는 것이 희망이다.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학생들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았으면"하고 학교에서는 평범하기를 바라는 그를 보면 우리와 다름없는 친근한 동대인임을 느낄 수 있다.

〈한상용 기자〉

알 림 이번호 만화는 필자 사정상 쉽니다.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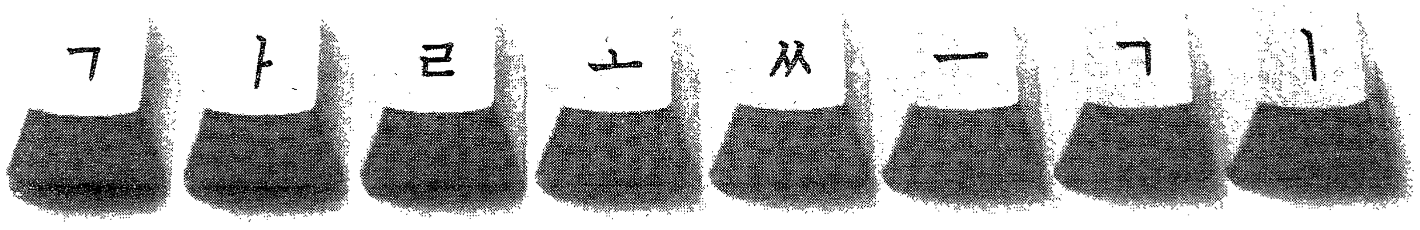
옥과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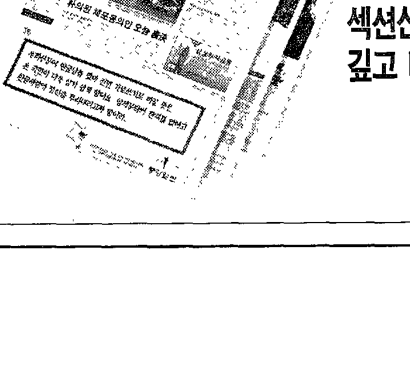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오는 12월 7백43만명에 대한 일반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국 공안사건 관련자 중 국가보안법과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집시법 위반자 중에서도 폭력행위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범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생활범죄가운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미한'범죄만이 사면대상이 된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50돌을 맞는 기쁜해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다방면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됐고, 8월에는 3천여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45년 수감이라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등이 석방됐으나 재벌급 경제인에 대한 배려와 현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일부 정치인을 풀어준것에 대해 '옥과 돌'이 섞인 사면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면치 못했다. ▲'문민정부'출범이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장기수를 포함한 양심수 4백60여명이 현재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 반공법·국가보안법·노동관계법 같은 법률에 묶여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1만명이나 된다. 현재도 학생·농민·노동자로서 신념에 따라 행동하다 국보법·집시법 등의 무작위 적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늘어나고만 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민주화'를 위해 국보법·집시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선배들 역시 이 법들을 위반하고 투쟁하여 현재를 만들어 왔다. 어찌 실제 국민생활에서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질서를 파괴한 사범들은 사면대상이 되지만 '민주화'를 외친 이들은 왜 제외가 됐는가. 국민 대화합차원에서 형기만료후나 벌금형 확정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면해주는 정부 차원에서의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

〈주〉

중앙일보 창간30주년

'컴퓨터 세대를 위한 중앙일보의 결단'





섹션신문 중앙일보가 10월 9일부터 전면가로쓰기 단행!
깊고 다양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쉽게 보십시오.

섹션신문 중앙일보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

중앙일보